

政策研究 98-21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全載旭·崔義炫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政策研究 98-21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全載旭 · 崔義炫

1998. 12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1978년 12월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농업부문에 인센티브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화폐잉여가 발생하고, 이 화폐잉여가 농업부문에 잔존해 있던 과잉노동력과 결합하여 농촌부문에서 鄉鎮企業의 발전을 가져왔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개혁·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향진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향진기업의 발전이 농촌노동력 이동과 중국경제구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국제화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향진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 보고서는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6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향진기업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개혁’ 측면에서 ‘개혁·개방’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에 관심을 가진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그리고 향진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8년 12월

院長 李景台

國文要約

1949년 新중국 성립 이후 1978년 12월 3중전회(3中全會: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산물로,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적인 경제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산잉여의 수탈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1957~78년간 농촌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의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 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제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 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이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i) 과잉노동력의 해소, (ii) 농업부문의 발전 촉진, (iii) 농촌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三資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 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目次

I	서론	15
II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8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18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22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29
III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33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34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38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47
IV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50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50
	2. 鄉鎮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54
V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	67
	1. 국제화 정의	67

2. 대외무역의 발전	70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76
4. 대외진출	80
VI 결론 및 시사점	83
1. 결론	83
2.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87
參考文獻	90
부록 1. 韓國企業의 對鄕鎮企業 진출 사례	95
2. 鄕鎮企業法	105
3.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	115
4. 과잉노동력의 추계	118
Executive Summary	120

表目次

<표 II-1> 농촌총생산액의 업종별 구성비	23
<표 II-2> 향진기업 생산액의 각 부문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표 III-1> 중국의 산업구조	40
<표 III-2> 중국 농촌의 취업구조	41
<표 III-3> 각 省별 농촌의 취업구조(1996)	42
<표 III-4> 사회전체에 있어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1981~90)	43
<표 III-5> 농업부문 流出노동력의 産業部門別 配分에 대한 국제비교	45
<표 III-6> 향진기업의 노동투입 변화	46
<표 III-7> 향진기업의 취업자구조 변화	48
<표 IV-1> 향진기업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53
<표 IV-2> 1995년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56
<표 IV-3> 1986년도 산업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	58
<표 IV-4> 1995년도 산업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	59
<표 V-1> 향진기업의 수출 추이	70
<표 V-2> 향진기업의 품목별 수출비중 변화	73
<표 V-3> 지역별 향진기업의 수출 순위(1996)	75
<표 V-4>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6)	77

그림目次

<그림 II-1>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24
<그림 II-2>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토지·노동비율의 추이	25
<그림 II-3> 농촌개혁 이후 향진기업의 발전 메커니즘	27
<그림 V-1> 향진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72
<그림 V-2> 향진기업의 수출품 구성 비교	74
<그림 V-3> 중국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향진기업의 비중	78
<그림 V-4> 전체 향진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추이	79

I 서론

1949년 新중국의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위한 혁명이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처한 중국 정부가 自力更生, 문화대혁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중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이하 3中全會)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 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제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 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신농업정책의 실시 이전에는 인민공사제도의 집단농업경영하에서 토지, 가축, 농기구 등이 집단으로 소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도 집단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더욱이 생산량은 노동點數에 따라서 농민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하에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생산성과 농민소득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인민공사의 집단경제·경영단위인 生産隊의 자주권은 行政에 의해 침해되었고, 이는 오히려 농업경영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했다.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민에게 증산의 욕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농촌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급상승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농촌개혁 이전의 增產不增收(생산이 늘어나도 농민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음) 또는 增產減收(생산이 늘어나면 정부의 공출증가로 오히려 농민의 수입이 감소)에서 벗어나 농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顯在化된 데다 중국정부의 정책변경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된 노동력 이동이 농촌내부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개혁·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향진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또한 III장에서는 新農業政策의 도입에 의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지면적 감소, 인구증가 등으로 顯在化된 방대한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가를 농촌부문과 도시부문 간의 이중구조가 아닌 농촌지역 내부, 즉 농촌 농업부문과 농촌 공업부문 간의 이중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농촌노동력의 이동을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생산요소투입의 변화가 향진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어떠한 산업에서 향진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향진기업의 진입이 해당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산업조직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이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에 걸쳐 향진기업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 우리기업의 對향진기업 진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중국의 농촌기업은 3중전회 이후, 특히 1984년 향진기업으로 그 명칭이 바뀐 이후 향진공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이군돌기(異軍突起: 새로운 세력이 갑자기 출현함)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3중전회 이전의 사회경제체도를 '傳統的 社會主義'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 방식[蓄積方式]에는 향진공업의 전신인 社隊企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전통적 사회주의의 공업화 전략에는 현재의 향진기업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社隊企業이 존재했던 것이다.

가. 사회주의 경제의 전개와 인민공사

중국은 구사회주의 국가(동구의 일부국가 제외)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국민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고 정치·경제면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야심적인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경제발전 초기의 공업화과정에서 도시노동자의 임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자 농촌부문을 도시노동자의 식량공급부문으로 설정, 시장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도시부문에 공급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농산물을 저가에 수매하고, 경공업제품을 고가에 파는

1) 중국의 1948년도 농업인구 비율은 89.4%이었음.

소위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농촌부문에 잉여를 수탈했다고 할 수 있다.²⁾ 이 부등가 교환에 의해 경공업부문에 축적된 막대한 이윤은 전부 國庫로 귀속되었고, 이 이윤과 거래과정에서 징수된 세금이 국유 중공업부문 투자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자본축적은 중국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중국은 공업화의 추진이 구소련이나 동구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毛擇東 시대에는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추월하기 위한 야심찬 공업화를 전개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농촌부문에는 한층 더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新中國의 성립 이후 농촌은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러한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농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그것이 1958년 중반에 강제적으로 농민을 조직화하여 농업집단화한 「人民公社制度」이다.

기존의 공업생산기반은 일부 도시에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되는 것은 그만큼 도시기반정비를 위한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³⁾ 따라서 도시의 과잉인구에 대해서도 농촌부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적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별함으로써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도시호적을 가진 사람은 곡물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을 배급받고 동시에 취직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농민보다 우대되었다. 반면에 농촌호적을 가진 사람은 생활의 모든 것을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

2) 池田誠外(1985, pp. 194-200).

3) 전계서(pp. 213-215).

기 때문에 농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토지를 떠나서는 원칙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이 실시되었던 그 자체가 자금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금이 중공업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정책선택 하에서는 중공업 이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부문은 도시노동자를 위해 곡물공출이 강요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업부문으로부터 생산재의 공급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농업투자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농민을 무상으로 灌溉공사에 동원하였고 농업생산재를 생산하게 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강제수매하고 치안 등 행정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였는데, 인민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농촌공업화의 시도

3中全會 이전의 농촌공업은 인민공사의 社營기업과 인민공사 산하에 있는 생산大隊의 隊營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두 기업을 통상 社隊기업이라고 일컬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大躍進정책하에서는 농업노동력을 무리하게 농촌공업에 흡수시켰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일시적이거나 대폭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사대기업의 활동도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됨으로써 공업생산 증대에도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61년부터 많은 사대기업이 폐쇄되었고, 특히 1962년에는 사대기업의 신규설립이 금지되었으며 철강·시멘트·화학비료·농기구 등을 인민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것도 중단되었다.⁴⁾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급속하게 추진했던 중국으로서는 농촌공업이 없이는 농

4) 張毅(1983, p. 121).

업생산재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바 농촌공업화의 재개는 불가피했다.

농촌공업화는 1970년의 北方地區農業會議를 계기로 다시 전개되었는데 농업기계화의 실현을 위해 농업에 관련된 산업을 지역의 자원부존조건 범위 내에서 장려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생활용품의 생산도 허용되었다. 또한 도시근교의 농촌에서는 도시공업의 하청도 허가되어 공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시근교 사대기업의 발전은 3중전회 이후 향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1971~1976년간 사대기업의 생산증가율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21.6%를 기록하였으며, 사대기업 중 인민공사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26.0%에 달했다.⁵⁾

이 당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공업은 어느 정도의 발전은 가능했으나, 농업부문의 침체로 전반적인 농촌경제의 발전을 야기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민경제에 새롭게 창출된 잉여가 생산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고에 집중되는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더욱이 당시의 농촌공업화는 어디까지나 농촌의 근대화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이후에 나타났던 농업생산성의 제고나 농민들의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급속한 중공업화의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 농업잉여를 제공한 농촌부문은 구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생산력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농업생산재뿐만 아니라 공업제품도 농업부문 내부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사대기업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업화, 자본축적의 일부를 담당해 온 사대기업은 경제개혁 이후 새롭게 생성된 사영기업과 함께 향진기업으로서 새로운 자본축적의 주역으로

5) 全載旭(1993, pp. 28-40).

등장하게 되었다.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은 종래의 行政指令型 계획경제에서 점차 시장 경제로 진행되었다. 3중전회에서는 경제관리의 분권화와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이 제기되었는데, 전자는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는 과제였으며, 후자는 농촌 및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의 도입이었다.⁶⁾

가.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 請負制 도입 및 사회적 분업

경제개혁이 시작된 1978년 말까지 농촌부문에 잉여가 잔존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격의 설정과 강제 수매제도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격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농민은 제도상 국가에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의 수매가격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반면 농업생산비용은 상승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의 노동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⁷⁾

1978년 12월의 3중전회와 1979년 9월의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⁸⁾(이하, 「결정」) 이후 농촌부문의 산업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표 II-1).

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7) 1965년에 0.7元이었던 하루 노동보수는 1975년에는 0.56元으로 감소(『光明日報』, 1978年 12月 7日).

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6b).

<표 II-1> 농촌총생산액의 업종별 구성비

(단위: %)

연도 \ 구분	농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양식업
1980	68.9	19.5	6.5	1.7	3.5
1985	57.1	27.6	8.1	3.0	4.3
1986	53.1	31.5	7.8	3.3	4.3
1987	49.6	34.8	7.7	3.6	4.4
1988	46.8	38.1	7.1	3.5	4.5
1989	45.1	40.7	6.4	3.6	4.3
1990	46.1	40.4	5.9	3.5	4.1
1991	42.9	43.5	6.0	3.5	4.1
1992	35.8	50.0	6.2	3.6	4.4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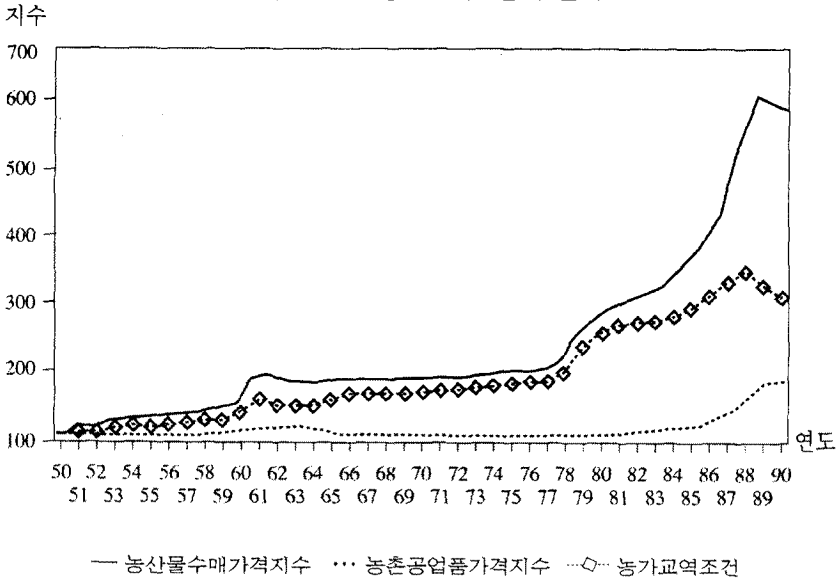
우선 농산물 수매가격이 1965년 이후 십여 년만에 인상되었다. 수매가격의 인상은 농민에게 증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증가와 농가소득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업투입재의 상대가격이 인하되어 농가교역조건도 개선되었다(그림 II-1). 이처럼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은 농민의 잉여증식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농업잉여를 증대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즉 청부제가 실시되었다. 종래 농민은 인민공사·生産大隊하의 生産隊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집단적으로 경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노동투하의 유효성에 의해 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잉여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농민은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동생산성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12년 동안 1952년의 생산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 II-2).⁹⁾

청부제의 도입은 이러한 농촌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민에 대한 분

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p. 28-40).

<그림 II-1>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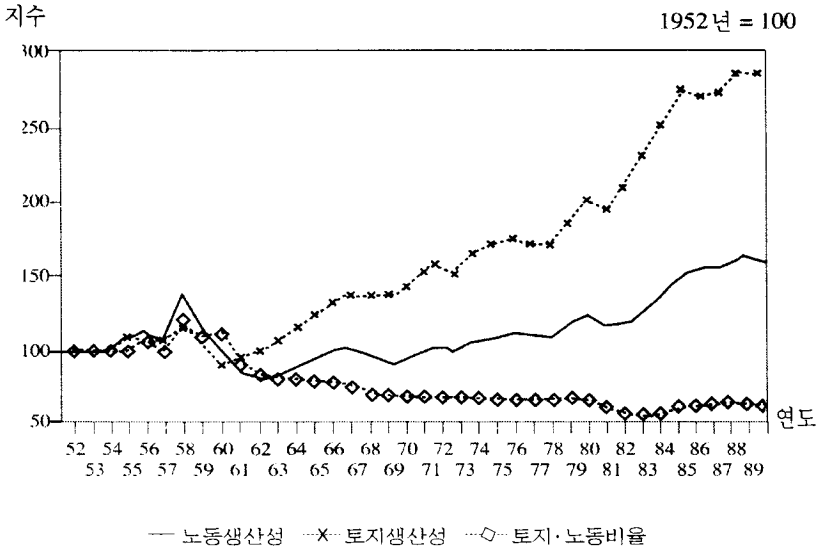


배가 얼마만큼 증대했는지에 따라 평가되고 더욱이 증산한 만큼 국가가 수매해 주었기 때문에 증산은 곧바로 농민의 소득증대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농민소득의 증대는 농민의 소비수요를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청부제는 생산경영면에서 생산대의 자주권이 인정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자주경영권을 가진 가족농업인 戶別經營請負制로 귀착되었다.¹⁰⁾ 이 호별경영청부제는 농민의 노동투하의 결과에 따라 수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시스템이다.

10) 호별경영청부제는 「包幹到戶」로 노동點數에 의한 생산대의 통일분배는 받지 않으나 각 농가는 생산대에서 청부된 농지에 대해 완전한 경영권을 가지고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도 개인소유가 되고 생산투자도 각 농가에서 실시함. 농업청부제에 관해서는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 135) 및 小島麗逸(1988, pp. 74-76) 참조.

<그림 II-2>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토지·노동비율의 추이



청부제의 도입에 이어 목축·임업·어업의 발전도 장려되어 농촌지역의 농림·수산업구조도 다양화되고, 농민은 각 作物, 또는 각 산업 간의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특히 농업과 가공, 운수, 판매도 병행하는 농가와 비농업에 특화하는 농가도 출현하게 되었다. 1984년에 향진기업에 포함된 개인영업과 농민합작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민이 비농업에 특화하더라도 곡물을 자급할 수 있는 경지만은 보유하게 하는 것이 중국 농업정책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의 형성과 심화는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자급부분 이상의 잉여생산물이 교환을 전제로 생산되고, 생산물이 유통되는 이른바 상품경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3중전회를 계기로 상품경제의 발전 없이는 국민경제의 근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에 ‘계획적 상품경제,’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규정한

중국경제의 성격은 그 기원을 3중전회에서 찾을 수 있다.

청부제도입과 함께 농촌지역의 사회적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소득이 증대되었고, 이는 저축증대로 이어졌다. 예컨대 농업은행의 예금 중 가계예금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20.1배나 증가하였으며, 가계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에 7.6%에서 41.3%로 상승하였다. 또한 農村信用合作社에 예탁된 농가예금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9.0배 증가하였으며, 농가예금의 비중도 동기간 36.3%에서 8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3중전회 이후 청부제의 도입에 의해 농민의 생산의욕이 고조되고 농업생산성도 향상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창출된 농업생산잉여가 농업은행과 농촌신용합작사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¹¹⁾

한편으로 청부제의 도입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그 동안 은폐되어 있었던 농촌의 과잉노동력문제가 顯在化되었다.¹²⁾ 농촌에서는 도시로 유출되고자 하는 인구의 압력이 증가한 반면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은 정부가 戶口제도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이들 과잉노동력은 일자리를 농촌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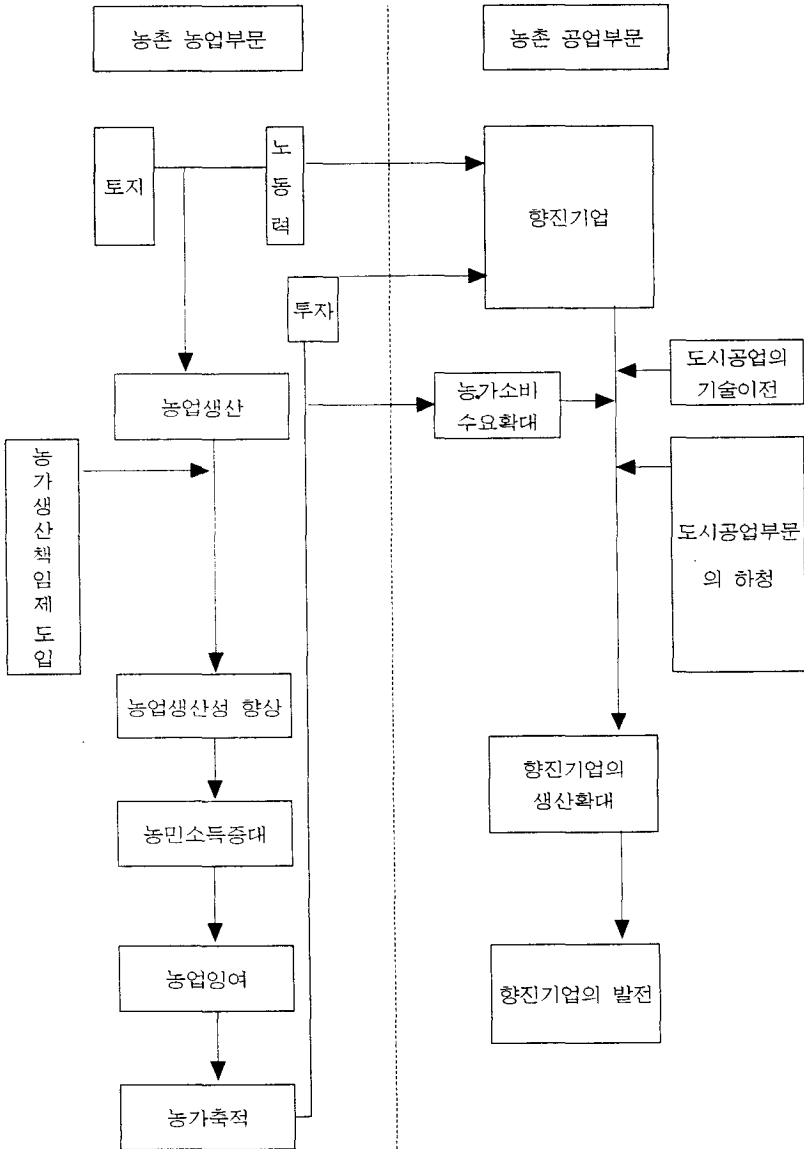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창출된 농촌의 자금과 과잉노동력이 결합하여 농촌기업인 향진기업으로 결집하게 됨으로써 향진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농촌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그림 II-3).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이전에는 농촌부문의 총생산량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향진기업에 의한 고용창출로 인해 도시부문으로의 인구

11) 『中國農村金融統計』(1991) 및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1982, pp. 143-169) 참조. 중국의 농촌금융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농업은행, 농촌신용합작사가 있음.

12) 부록 4의 <표 1>은 농업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한 면적을 추계하여 적정 농업노동력을 산출하여 각 省별 과잉노동력을 추계한 것이며, <표 2>는 孟昕·白南生の 과잉노동력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과잉노동력을 추계한 것임.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1982) 제2장 제1절과 孟昕·白南生(1988) 참조.

<그림 II-3> 농촌개혁 이후 향진기업의 발전 메커니즘



자료: 필자 작성.

집중을 완화하고 농촌내부에서 노동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도시 집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社隊企業에서 鄉鎮企業으로의 변화

1979년에 공포된 「社隊企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¹³⁾(이하 「규정」) 이후 사대기업은 예전과 같이 농업관련 산업의 생산을 우선으로 하면서 생활용품 생산, 도시공업 하청, 수출품 생산 등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농촌공업이 농촌·농업의 일부에서 공업의 일부로 그 위치를 전환하게 됨을 의미한다.

1982년에는 인민공사의 정치·행정기능과 경제기능을 분리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에 실시된 개혁조치의 결과, 농민에게 생산을 강제하는 정치·행정·경제기능이 일체화된 기구가 더 이상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¹⁴⁾ 오히려 농촌조직의 경제기능을 중시하고 그 자주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종래의 인민공사 및 생산대대는 공사화 이전의 호칭, 즉 공사는 鄉 또는 鎮으로, 생산대대는 村으로 환원되어 행정기능과 경제기능이 분리되었다.¹⁵⁾

또한 1984년의 「農村工作通知」¹⁶⁾에서 농촌부문의 사회적 분업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기업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공업제품의 공급을 담당한 것이 다름 아닌 사대기업이었다. 동년 3월에는 「사대기업의 신국면을 개척하는 것에 관한 보고」¹⁷⁾가 통달되어 지금까지의 公社企業은 鄉·鎮營企業으로, 大隊企業은 村營企業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이 향영·진영·촌영기업에 농촌지역에

13) 中國農業年鑑編輯委員會(1981, pp. 96-100).

1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6c).

15) 「關於實行政社分開建立鄉政府的通知」, 『國務院公報』(1983년, 第23號).

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6c).

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6d).

입지한 개인·공동경영기업을 포함하여 향진기업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사대기업에서 향진기업으로의 개칭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개혁 이후 많은 조치들에 의해 종래의 사대기업이 발전했음은 물론이고 脫農化하는 농민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진기업은 사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업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상업, 음식업 등 다른 부문에도 존재하였으며, 이들도 농촌부문의 산업구조변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개혁 이후 농촌부문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1984년 이후에 두드러졌다. 농촌사회 생산액에 차지하는 향진기업 생산액의 구성비가 1980년에는 22.3%에 불과하던 것이 1987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1992년에는 70.8%까지 상승했는데, 이를 견인한 것이 향진기업이었다. 또한 향진기업 생산액이 1988년부터는 농업생산액을 상회하고 있는바 이는 농촌에서 향진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II-2).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부제의 도입에 의해 표면화된 과잉노동력을 농촌내부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중국정부의 사회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에서도 상품경제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촌내부에 소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小都市에서 工商業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창출정책을 실시하였다.¹⁸⁾

18) 「國務院關於農民進入集鎮落戶問題的通知」(1984년 10월 13일).

<표 II-2> 향진기업 생산액의 각 부문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원)

연도	전국사회 생산액	농촌사회 생산액	공업 생산액	향진기업 생산액	농업 생산액	(D/A) (%)	(D/B) (%)	(D/C) (%)	(E/B) (%)
	(A)	(B)	(C)	(D)	(E)				
1979	7,642	2,454	4,681	548	1,697	7.2	22.3	11.7	69.1
1980	8,543	2,792	5,154	657	1,922	7.7	23.5	12.7	68.8
1981	9,075	3,180	5,400	745	2,180	8.2	23.4	13.8	68.5
1982	9,966	3,622	5,811	853	2,483	8.6	23.6	14.7	68.5
1983	11,131	4,124	6,460	1,017	2,750	9.1	24.7	15.7	66.7
1984	13,171	5,068	7,617	1,710	3,214	13.0	33.7	22.4	63.4
1985	16,582	6,340	9,716	2,728	3,619	16.5	43.0	28.1	57.1
1986	19,045	7,554	11,194	3,541	4,013	18.6	46.9	31.6	53.1
1987	23,034	9,432	13,813	4,764	4,675	20.7	50.5	34.5	49.6
1988	29,807	12,535	18,225	6,496	5,865	21.8	51.8	35.6	46.8
1989	34,519	14,480	22,017	7,428	6,534	21.5	51.3	33.7	45.1
1990	38,035	16,619	23,924	8,462	7,662	22.3	50.9	35.4	46.1
1991	44,142	19,004	28,248	11,622	8,157	26.3	61.2	41.1	42.9
1992	55,842	25,386	37,066	17,975	9,084	32.2	70.8	48.5	35.8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3.

이와 같이 향진기업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하면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5년부터는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이 耕種農業 생산액을 상회하는 등 농촌경제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3중전환 이전에 중국 농촌경제의 주체는 식량생산이었으나, 지금은 비농업부문, 특히 그 중에서도 향진기업이 식량생산을 대신하여 중심적인 부문으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농촌 과잉노동력의 흡수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발전초기에는 해당 농촌지역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지역과 다른 지방으로까지 판매망을 확대하였다.¹⁹⁾ 또한 향진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기업의 이윤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자인 농민의 소득도 증가하여 농촌의 구매력과 저축도 증

대되었다. 향진기업은 전반적인 시장정보는 국유기업에 비해 뒤질지 모르지만 유연한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촌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민한 경영메커니즘의 형성은 국유기업의 개혁목표이지만 국유기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향진기업은 처음부터 이 메커니즘을 이용한 생산활동을 시행하였다.²⁰⁾ 국유기업은 본래 국가계획의 양적 달성에 중점이 주어진 기관으로 개별기업의 採算은 거의 문제되지 않았고, 또한 국가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도산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향진기업은 그 前身인 사대기업이었을 때부터 국가계획과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설립·경영자금의 조달에서 원료의 조달·판매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실시해왔던 것이다.²¹⁾

1984년 이후 향진기업으로 바뀐 후의 급성장에는 개혁 이후 농촌부문에 서 급속하게 팽창한 저축을 배경으로 한 용자의 解禁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농촌부문에 서 창출된 저축은 농촌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도시의 工商業 부문에 공급되었으나, 1984년을 기점으로 농촌내부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순환하게 되어 향진기업에 대한 대출은 향진기업의 예금을 훨씬 상회하였다.²²⁾ 이는 빠르게 증가한 농가의 예금이 향진기업으로 대출되었기 때문이다.

19) 周其仁, 胡庄君(1987).

20) Weitzman and Xu(1993, p. 128)은 1979~91년까지 국유기업과 향진기업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이 기간 연평균 GDP성장률은 13.3%이었으며 국유기업의 생산증가율은 8.4%, 향진기업의 그것은 13.3%라고 분석함. 또한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율은 국유기업은 4.0%, 향진기업은 12.0%라고 추정함.

21)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향진기업의 발전에는 지방정부의 암묵적 지원, 지역인사와의 편서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Zhou and White(1995), Chang and Wang(1994) 참조).

22) 林信道(1976).

향진기업이 설립될 당시, 그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기업당의 고정자산규모(鄉級인 경우)는 1991년 약 18만 元으로 국유기업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²³⁾ 향진기업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도 없지 않았지만 이들은 설립 당시부터 가격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는바 시장경제로의 적응과정을 통해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1984년 향진공업의 생산액은 전국 공업 생산액의 6분의 1에 불과했으나 1992년 이후에는 70%에 근접하고 있는 등 향진기업의 경영활동은 생산을 비롯하여 고용·외화획득 및 국가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향진기업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경제에 불가결한 존재로서 성장해왔으며, 이는 1988년에 제기된 '연해경제개발전략'에 의해 국민경제발전전략의 주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²⁴⁾

한편, 향진기업이 중국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구소련의 경제자유화와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소련의 경제자유화가 실패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자주권을 주면서도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과점·독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향진기업은 경영규모가 작고, 가격지배력을 가지지 않은 가격수용자였기 때문에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대량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23) 『中國統計年鑑』(1992).

24) 이것은 1988년 趙紫陽이 표명한 것으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가공공업전략(進料加工)으로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연해지역의 향진기업이었음.

III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중국은 1950년대 이후 국가 경제발전 전략의 중점을 중공업부문에 두고 호적제도하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빈곤한 농촌과 풍부한 도시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른바 「口糧制度」와 「노동취업제도」이다.²⁵⁾

그러나 197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체제 개혁은 이러한 농업상황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어 온 노동력 이동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1984년 3월 「농민이 集鎮에 이주하고, 戶籍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通知」가 발표됨으로써 농민호적을 가진 농민과 그 가족이 식량배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소도시(小城鎮)로의 이주가 허용된 것이다.²⁶⁾ 그리고 신농업정책의 도입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상승과 경지면적의 감소, 인구증가 등으로 중국농촌에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과잉노동력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잉노동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978년의 경제개혁 개시 이후 중국농촌에서는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견인차가 된 것이 농촌공업을 주도한 향진기업이다. 향진기업은 농촌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농촌내부에서

25) 「口糧制度」란 농업호적과 도시호적의 구분에 의해 도시호적 소유자에게만 식량배급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勞動就業制度란 도시에서의 취업은 勞動人事부가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에는 인사권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함(加藤弘之(1990) 참조).

26) 대도시로의 이전은 제외됨.

농업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농촌지역 내부에서의 농촌 농업부문과 농촌 공업부문이라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농촌의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는 농촌내부에서의 二部門間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였으며, 二部門間 노동력의 유동성 정도가 농촌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Lewis의 무제한적 노동공급모델에서 시작된 이중구조의 경제발전 이론에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대량의 과잉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중심이 공업부문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²⁷⁾

일반적으로 이중경제발전 이론에서는 하나의 경제는 농업부문(농촌부문)과 공업부문(도시부문)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간의 노동 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도시의 국유기업은 이미 노동과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공업부문에서의 고용흡수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二部門(농업부문과 공업부문) 간의 경제성장 메커니즘을 일반적인 이중경제발전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여기에서는 농촌부문과 도시부문 간의 이중구조가 아닌 농촌지역 내부에서의 농촌 농업부문과 농촌 공업부문과의 이중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농촌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集權的 指令經濟가 分權化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27) 二重構造 經濟發展 理論은 Lewis(1954) 및 Ranis and Fei(1964)을 참조.

농민에게 増産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농민의 수입을 크게 향상시켰다.²⁸⁾ 게다가 生産請負制에 따른 가족적 소농업경제경영의 부활과 인민공사의 해체로 인해 人民公社하에서 장기간 농촌에 내재되어 있던 과잉노동력이 일거에 顯在化되었고, 동시에 이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 과잉노동력의 이동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²⁹⁾

가. '不離土不離鄉' 型

이 형태는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작품종의 다양화에 따른 농업부문 내부에서의 이동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력 이동이 아니라 농업내부에서의 경영전략 전환에 의해, 즉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전통적인 穀物生産에서 經濟作物 生産으로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과잉노동력을 흡수하는 형태이다. 농촌 경제개혁 이후 총경작면적에서 곡물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작물의 생산비중은 증가하였다. 또한 농작물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곡물과 경제작물의 비중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농가 겸업에 의한 고용흡수의 확대이다. 농가 經營請負制의 도입은 농가의 겸업을 촉진시켜, 농민은 請負한 경지 이외에 공업·상업·운송업·서비스업 및 부업에도 종사하게 되었다.

'不離土不離鄉' 型の 장점은 농업내부에서 비교적 실행이 간단하고 사회적 투자와 농가 투자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작농업의 노동력 흡수에 한계가 있고, 경지면적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토지생산성을 더 이상

28) 全載旭(1995, pp. 170-173).

29) 馮蘭瑞·姜渭漁(1987).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나. ‘離土不離鄉’ 型

이는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농촌을 떠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향진기업의 발전에 의해 농업부문에서 非농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중국 농촌공업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농가전체가 이동을 동반한 산업간 이동은 드물며, 가족의 일부가 비농업화하는 겸업자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향진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鄉營企業과 村營企業의 노동자, 상업·음식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포함된다.³⁰⁾

농촌개혁 이후 농가 경영청부제의 도입에 따른 농민소득 상승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貨幣剩餘를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잉여는 향진기업에 흡수되었다.³¹⁾

‘離土不離鄉’ 型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내부에서 과잉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촌경제구조를 향상시킨다. 둘째, 국유기업에 비해 투자의 효율성이 높고, 동일한 자본투입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³²⁾ 셋째,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넷째,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업부문과 공업부문,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농촌 근대화를 촉진한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각 지역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시정하기 어렵다.³³⁾ 예를 들면 국토의 86.6%, 인구의 5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서부지

30) 菊池道樹(1992, p. 4).

31) 全載旭(전개서, pp. 174-177).

32) 이는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33) Islam and Jin(1994, pp. 1656-1657)은 계량모형을 통해 향진기업의 발전이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지역간 또는 지역내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기능도 하였다고 분석함.

역은 농업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통신의 발달도 미비하여 離土不離鄉 型の 노동 이동에 의한 향진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향진기업은 규모가 적고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국유기업과의 경쟁이 어렵고, 생산요소의 분배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셋째, 1984년부터 농민이 集鎮에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가족농업을 기초로 한 겸업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의 규모경영과 근대화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³⁴⁾

다. '離鄉不離土' 型

이 형태는 농촌에서 떠나지만 농업에는 종사한다는 형태로 빈곤한 지역의 농민이 향진기업이 발전한 지역의 농촌에서 토지를 청부받아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향진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서부 농촌지역에서 농업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진 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 성과는 크지 않다. 이 형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과는 성격이 다르고, 어디까지나 농업내부에 있어서의 노동력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다.

라. '離土又離鄉' 型

이 형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떠난다는 것이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 이동이다. 이 형태에는 대도시의 국유기업, 집단 소유제기업에 臨時工으로 취업하거나 건설업, 개인서비스업(식당 종업원·청소부)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34) 加藤弘之(1988, pp. 88-90).

한편, 이 형태에는 빈곤한 농촌에서 향진기업이 발전하여 공업노동력의 초과수요가 있는 다른 농촌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³⁵⁾ 그러나 도시부문도 대부분 과잉노동력문제를 안고 있어 농촌 노동력의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농촌 노동력의 네 가지 이동 형태 중에서, 특히 향진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離土不離鄉 型이 가장 일반적이고 중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도시화를 동반하지 않고 노동력을 농촌내부에서 흡수하였다는 점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서 나타나는 농촌—도시 간의 노동 이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일국의 경제발전은 공업화를 축으로 한 근대부문의 성장에 의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공업화를 통해 근대부문의 고용흡수력을 어떻게 제고시키고 농공 간의 노동 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개발도상국의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農工間 노동 이동은 공업부문이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산업간 노동 이동 패턴이 있다. 하나는 농업부문에서의 과잉노동력이 주로 고용흡수력이 강한 공업부문으로 흡수되는 산업간 노동 이동 패턴이며,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과잉노동력이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흡수되는 패턴이다. 전자는 공업부문에서 발생한 높은 노동수요에 의해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이 흡수되어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이 소멸되고 그것이 또한 농업 근대화를 촉진해 가는, 즉 아시아 신흥공업국가(NIES)에서 관찰되는 패턴이다. 후자는 공업부문의

35) 전계서(pp. 90-92).

노동수요를 상회하는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유출됨에 따라 나머지 노동력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비공식부문에 체류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관찰되는 패턴이다.³⁶⁾ 동남아 국가의 경우 산업별 취업자구조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라하하고 있는 것은 2차산업의 고용창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3차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³⁷⁾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이동은 농촌의 실업분제를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도시 비공식부문에 서의 잠재적 실업자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온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에 의한 신농업정책의 실시, 특히 농업 생산책임제의 도입은 오랫동안 저생산을 계속해 온 농업부문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1950년대부터 호적제도하에서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로 농업노동력의 유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농촌개혁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人民公社의 해체 등은 농촌지역에 이전의 과잉노동력을 상회하는 노동력이 顯在化되어 엄격하게 규제해 온 노동력 이동을 농촌내부에서 유발했다. 이처럼 농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이 농촌공업으로 유입되어 농촌에 있어서 공업부문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공업화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상이한 농촌노동력의 流入 패턴이며, 그 것은 과잉노동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시사를 내포하고 있다.

<표 Ⅲ-1>은 국내총생산과 노동력에 있어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국내총생산의 비중면에서 1차산업은 1952년 50.5%에서 점차적으로 하락(1960년 1차산업의 비중이 급감한 것은 대약진 시기에 농업생산을 무시한 도시 공업화가 추진되어 농촌노동력을 도시에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임)하여 1996년에는 20.4%까지 떨어졌으며, 2차산업도 동

36) 渡邊利夫(1991, pp. 151-156).

37) 南 亮進(1981, pp. 225-228).

<표 III-1> 중국의 산업구조

(단위: %)

	국내총생산			노동력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52	50.5	20.9	28.6	83.5	7.4	9.1
1960	23.4	44.5	32.1	65.7	15.7	18.6
1970	35.2	40.5	24.3	80.7	10.1	9.2
1980	30.1	48.5	21.4	68.7	18.3	13.0
1990	27.1	41.6	31.3	60.0	21.4	18.6
1992	21.8	43.9	34.3	58.5	21.7	19.8
1994	20.2	47.9	31.9	54.3	22.7	23.0
1995	20.5	48.8	30.7	52.2	23.0	24.8
1996	20.4	49.5	30.1	50.5	23.5	26.0

주: 1차산업은 농업·임업·목축·어업, 2차산업은 공업·건축업, 3차산업은 운수업·상업
임. 농촌공업은 제2차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中國統計年鑑』(각년판).

간 20.5%에서 49.5%로 증가하였다. 노동력의 就業構造 변화는 국민소득의 그것보다 완만한데 1차산업의 비중은 1952년에는 83.5%를 차지하였고, 1970년까지는 80%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1970년대 말부터 경제체제개혁에 따른 경제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996년에는 50.5%까지 하락하였다. 2차산업의 비중은 1970년대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에는 23.5%에 달하였다.

경제성장은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취업구조도 변화시킨다. 농촌개혁 이후 농촌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지역의 산업구조가 현저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향진기업이 담당하였다. 농촌의 경제성장은 농업에서 농촌공업·운수·상업으로 취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여 실현된 셈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내부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농업노동력의 이동을 가져왔다. <표 III-2>는 농촌개혁 이후 농촌의 취업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농촌 과잉노동력이 농촌내부의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표 III-2> 중국 농촌의 취업구조

(단위: %)

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80	90.4	7.0	2.6
1985	81.9	10.4	7.7
1990	79.4	11.3	9.3
1991	79.3	11.2	9.5
1992	77.7	11.7	10.6
1993	75.2	12.6	12.2
1994	73.2	13.2	13.6
1995	71.8	13.7	14.5
1996	71.2	14.0	14.8

주: 1차산업은 농업·임업·목축·어업, 2차산업은 공업·건축업, 3차산업은 기타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각년판).

로 취직의 기회를 얻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산업의 구성비는 1980년 90.4%에서 1996년 71.2%로 하락한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의 구성비는 동 기간 각각 7.0%에서 14.0%로, 2.6%에서 14.8%로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는 1차산업에 비해 2차산업과 3차산업이 고용흡수력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농촌지역 내부에서도 노동력 구성의 변화, 즉 페티·클라크의 경험법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각 省별 농촌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촌의 취업구조와 같이 沿海地域과 그 외의 다른 지역 간의 취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3). 沿海地域에 있어 1차산업의 비율이 전국 평균(71.2%)을 밀돌고 있으며, 2차산업의 경우는 전국 평균(14.0%)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그 외의 지역은 1차산업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2차산업은 전국 평균을 밀돌고 있다. 그리고 1990년과 1996년의 각 省별 농촌취업구조를 비교하면, 1차산업의 비율이 79.4%에서 71.2%로

<표 III-3> 각 省별 농촌의 취업구조(1996)

(단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합계
북경	40.7	32.5	26.8	100.0
천진	47.8	36.0	16.2	100.0
하북	62.8	21.3	15.9	100.0
산서	66.6	17.6	15.8	100.0
내몽고	85.0	6.2	8.8	100.0
요녕	69.4	15.6	15.0	100.0
길림	84.9	6.0	9.1	100.0
흑룡강	82.5	8.6	8.9	100.0
상해	29.1	47.3	23.6	100.0
강소	55.4	27.2	17.4	100.0
절강	53.5	26.4	20.1	100.0
안휘	74.6	11.1	14.3	100.0
복건	66.5	16.0	17.5	100.0
강서	71.5	9.4	19.1	100.0
산둥	69.5	17.6	12.9	100.0
하남	73.2	13.8	13.0	100.0
호북	72.3	12.2	15.5	100.0
호남	75.5	10.1	14.4	100.0
광둥	56.5	21.1	22.4	100.0
광서	79.1	6.6	14.3	100.0
해남	80.5	6.6	12.9	100.0
사천	75.8	9.2	15.0	100.0
귀주	85.3	4.2	10.5	100.0
운남	88.5	4.8	6.7	100.0
서장	92.9	2.5	4.6	100.0
섬서	78.6	9.6	11.8	100.0
감숙	75.8	8.0	16.2	100.0
칭해	86.5	5.6	7.9	100.0
녕하	86.5	6.8	11.7	100.0
신강	90.5	3.7	5.8	100.0
전국평균	71.2	14.0	14.8	

자료: 『中國統計年鑑』(1997).

<표 Ⅲ-4> 사회전체에 있어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1981~90)

(단위: 만 명)

	1981年	1990年	推計值(90年)	移動量	%
1차산업 (農林牧副漁)	31,171	34,177	40,865.2	-6,688.2	
2차산업	7,070	12,258	9,268.8	2,989.2	44.7
1. 工業	5,796	9,797	7,598.6	2,198.4	32.9
2. 建設業	1,274	2,461	1,670.2	790.4	11.8
3차산업	5,039	10,305	6,606.1	3,698.9	55.3
1. 運輸·通信業	833	1,469	1,092.1	376.9	5.6
2. 商業·서비스業	1,722	3,792	2,257.5	1,534.5	22.9
3. 科學·文教·衛生· 福利	1,645	2,167	2,156.6	10.4	0.2
4. 機關·團體	555	1,079	727.6	351.4	5.3
5. 기타	284	1,798	372.3	1,425.7	21.3
合計	43,280	56,740	56,740.1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1986년, p. 223), 『中國統計年鑑』(1991년, p. 106)

하락했으며, 2차산업의 비율은 11.3%에서 14.0%로 상승했다.³⁸⁾ <표 Ⅲ-3>에서 沿海地域의 2차산업 비율이 여타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향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간 이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 산업간 노동력 이동에 관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산업부문의 노동력 증가량에서 그 부문에 있어 노동력의 자연증가량을 제한 나머지를 산업간 노동 이동량으로 정의한다. 산업간 이동량이 陽數이면 타부문에서 이 부문으로 노동력이 유입되었음을 나타내며, 陰數이면 이 부문에서 타부문으로 노동력이 유출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 산업

38) 『中國統計年鑑』(1997년).

부문의 자연증가율은 그 부문 노동력의 자연증가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문 노동력의 평균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정한다.³⁹⁾

<표 III-4>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전체에 있어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량을 추정한 것이다. 이 기간에 1차산업에서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이동한 노동력은 6,688만 명이며, 그 중에서 44.7%가 2차산업으로, 55.3%가 3차산업으로 이동하였다.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량을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대만의 경우에는 1차산업에서 유출된 노동력의 65~75%가 2차산업, 나머지 25~35%가 3차산업으로 유입되었다(표 III-5). 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이동한 노동력 규모는 적은 대신 3차산업으로의 유입비율은 74~13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⁴⁰⁾

이상의 관찰에서 중국의 1차산업에서의 流出 노동력의 패턴은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3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패턴은 아니지만, 한국·대만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차산업에서 유출된 노동력이 주로 향진기업을 통해 흡수되고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상 3차산업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억제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표 III-5> 참조).⁴¹⁾

향진기업은 도시로의 노동력이동, 물질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근대화와 사회안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향진기업의 이러한 역할로 중국의 노동력 이동 패턴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농촌지역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의 노동력에 대한 산업별 이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차산업, 3차산업의 취업자는 완전한 이동을 동반한 노동력

39) 渡邊利夫(1991) 및 嚴善平(1989) 참조.

40) 渡邊利夫(1991, pp. 151-153).

41) 田島俊雄(1991, pp. 67-73).

<표 Ⅲ-5> 농업부문 流出 노동력의 産業部門別 配分에 대한 국제비교

(단위: %)

	제2차산업	제3차산업
한국(63-80)	65.7	34.3
대만(60-80)	74.9	25.1
필리핀(60-80)	-30.8	130.8
인도네시아(71-80)	25.9	74.1
중국(81-90)	44.7	55.3

자료: 中國은 <표 Ⅲ-4>, 그 외는 渡邊利夫(1987, p. 153)에서 인용.

의 산업간 이동이 아니라 최저한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請負된 농지는 경작하였고 따라서 가구의 일부가 비농업부문에 취업하는 겸업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1990년 6월 집단소유제기업에 취직하고 있던 노동자가 자신의 마을(村)에 돌아올 때는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는 조례가 공포된 후 겸업이 농촌 노동력 이동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다.⁴²⁾

1981~90년 농촌노동력의 산업간 이동분석에 의하면 농촌지역 내부에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에 의해 1차산업에서 유출한 노동력의 수는 6,996만 명이다. 그 중에서 2차산업에는 50.3%, 3차산업에는 46.3%가 유입했다. 나머지 3.4%는 농업부문에서 주로 臨時工으로서 도시에 유출된 노동력의 수라고 판단된다.⁴³⁾

어떻든 1981~90년 사이 제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 제3차산업으로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매우 크며, 더욱이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은 적고 주로 그것이 농촌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 내부에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즉 농촌지역의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업부문과

42) 菊池道樹(1992, p. 7).

43) 농촌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流出한 노동력 수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농촌부문의 자연증가율이 전 부문의 평균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표 III-6> 향진기업의 노동투입 변화

연도	향진기업수 (A)	노동자수 (B)	기업총생산액 (C)	단위기업당 노동자수(B/A)	노동생산성 (C/B)
단위	만 개	만 명	억 元	명	元
1978	152	2,827	493	18.6	1,744
1979	148	2,909	548	19.6	1,884
1980	142	3,000	657	21.1	2,190
1981	134	2,970	745	22.1	2,508
1982	136	3,112	853	22.8	2,741
1983	135	3,235	1,017	23.9	3,144
1984	607	5,208	1,710	8.58	3,283
1985	1,222	6,979	2,728	5.71	3,909
1986	1,515	7,937	3,541	5.24	4,461
1987	1,750	8,805	4,764	5.03	5,411
1988	1,888	9,545	6,496	5.06	6,806
1989	1,866	9,367	7,428	5.02	7,930
1990	1,850	9,265	9,581	5.01	10,341
1991	1,907	9,609	11,622	5.04	12,095
1992	2,091	10,625	18,051	5.08	16,621
1993	2,453	12,345	31,541	5.03	25,741
1994	1,867	11,330	42,588	6.07	40,051
1995	2,203	12,861	57,299	5.84	44,553
1996	2,336	13,508	68,342	5.78	50,594

주: 1995년과 1996년 기업총생산액은 營業收入額임.

자료: 『中國鄉鎮企業年監』(각년호).

비농업부문(공업, 서비스업) 간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며 신농업정책의 도입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상승, 농업노동력의 1인당 경지면적의 감소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농민 및 그 가족이 식량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도시로의 이주가 허가되어 노동력 이동의 제한이 다소나마 완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관찰된 산업간 노동 이동은 도시공업부문의 고용흡수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의 고용능력을 상회하는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이 유출되어 이들 가운데 많은 노동자가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도시 비공식부문에 잔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노동 이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소도시로의 이동은 인정되고 있어, 즉 ‘離土不離鄉’ 型の 노동 이동으로 인한 공업부문의 발전은 농촌노동력을 흡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이 과잉노동력의 최대 흡수자는 농촌공업을 중심으로 한 향진기업이다. 향진기업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하면서 발전하여 그 생산액이 1985년 이후부터는 경종농업 생산액을 초과함으로써 식량생산을 대신하여 농촌경제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표 Ⅲ-6> 향진기업의 노동투입 변화와 <표 Ⅲ-7> 향진기업 취업자구조의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개혁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대기업에서 향진기업으로 개칭된 1984년 향진기업의 취업자 수는 5,208만 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1억 3,50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493억 元에서 7조 4,956억 元으로, 노동생산성이 1,744元에서 5만 5,490元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단위 기업 당 노동자 수가 199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4년부터 취업자 수에 비해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Ⅲ-6>에서 1983년에서 1984년 사이 기업 수가 급증(135개→

607개)하고 단위 당 노동자 수가 급감(23.9명→8.6명)한 이유는 1984년 향진기업에 대한 명칭이 사대기업에서 향진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개체·사영·합작기업 등이 새로이 향진기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84~96년까지 향진기업이 8,300만 명의 노동자를 흡수한 것은 향진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이전까지 고용흡수력이 높은 공업부문의 비중이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고, 그 이후에

<표 III-7> 향진기업의 취업자구조 변화

(단위: 만 명)

연도	합계	농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1978	2,826.6	608.4 (21.5)	1,734.4 (61.4)	235.6 (8.3)	103.8 (3.7)	144.3 (5.1)
1979	2,909.3	533.0 (18.3)	1,814.4 (62.4)	298.5 (10.3)	116.9 (4.0)	146.6 (5.0)
1980	2,999.7	456.1 (15.2)	1,942.3 (64.8)	334.7 (11.2)	113.6 (3.8)	153.1 (5.1)
1981	2,969.6	379.9 (12.8)	1,980.8 (66.7)	248.8 (11.7)	107.4 (3.6)	152.6 (5.2)
1982	3,112.9	344.0 (11.1)	2,072.8 (66.6)	421.3 (13.5)	112.9 (3.6)	161.8 (5.2)
1983	3,234.6	309.2 (9.6)	2,168.1 (67.0)	482.7 (14.9)	109.7 (3.4)	164.9 (5.1)
1984	5,208.1	283.9 (5.5)	3,656.1 (70.2)	683.5 (13.1)	129.3 (2.5)	455.3 (8.7)
1985	6,979.0	252.4 (3.6)	4,136.7 (59.3)	790.0 (11.3)	114.2 (1.6)	1,685.8 (24.2)
1986	7,937.1	240.8 (3.0)	4,762.0 (60.0)	1,270.4 (16.0)	541.3 (6.8)	1,122.8 (14.1)
1987	8,805.1	244.2 (2.8)	5,266.7 (59.8)	1,374.0 (15.6)	623.1 (7.1)	1,297.2 (14.7)
1988	9,545.5	250.0 (2.6)	5,703.4 (59.7)	1,484.8 (15.6)	684.2 (7.2)	1,423.1 (14.9)
1989	9,366.8	239.3 (2.6)	5,624.1 (60.0)	1,403.7 (15.0)	699.4 (7.5)	1,400.3 (14.9)
1990	9,264.6	236.1 (2.5)	5,571.7 (60.1)	1,346.8 (14.5)	711.2 (7.7)	1,398.9 (15.1)
1991	9,609.1	243.1 (2.5)	5,813.6 (60.5)	1,384.3 (14.4)	732.3 (7.6)	1,435.8 (15.0)
1992	10,581.1	254.8 (2.4)	6,336.4 (59.9)	1,540.7 (14.6)	796.9 (7.5)	1,652.3 (15.6)
1993	12,345.3	285.4 (2.3)	7,259.6 (58.8)	1,827.0 (14.8)	931.4 (7.5)	2,042.0 (16.5)
1994	12,018.2	260.8 (2.2)	6,961.6 (57.9)	1,621.8 (13.5)	725.7 (6.0)	2,448.3 (20.4)
1995	12,862.1	313.5 (2.4)	7,564.7 (58.8)	1,948.8 (15.2)	1,062.3 (8.3)	1,924.3 (15.0)
1996	13,508.3	336.0 (2.5)	7,860.1 (58.2)	1,948.8 (14.4)	1,062.3 (7.9)	1,924.3 (14.2)

주: ()안은 구성비.

자료: 『中國統計年鑑』(각년도).

는 공업부문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향진 기업의 취업구조도 다변화하여 건설업, 교통·운수업, 상업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중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서비스 부문의 경시정책으로 인해 3차산업의 발전이 매우 더디었으나, 1978년의 경제체제개혁으로 3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1989년과 1990년에 향진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중국의 긴축경제정책과 천안문 사태의 영향으로 향진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IV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향진기업은 농촌의 잉여노동력과 잉여자본을 흡수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는 향진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요소투입비율의 변화는 향진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생산요소투입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향진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향진기업의 발전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조직론의 측면에서 보면, 향진기업의 진입은 독점산업에서 신규기업이 진입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어떤 산업에서 향진기업의 진입이 잘 이루어졌으며, 향진기업의 진입에 따라 산업구조가 독점적에서 경쟁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기업이 어떠한 요소를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는 단적으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기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처럼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하고 임금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절약적 또는 자본사용적인 기업운영이 일반적일 것이다. 반대로 과잉인구가 상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서는 경제정책목표, 기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집약적인 기업운영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⁴⁴⁾ 오랜 기간 동안 과잉노동력의 존재가 국가발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농촌에 있어서 농촌공업화를 논의한다면 우선 후

자의 입장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추세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투입에 따른 향진기업의 생산 변화를 추정한다. 1989~96년까지 8년간 향진기업의 생산요소투입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설정한다.

$$Y = A L^{\alpha} K^{\beta}$$

Y :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억 원),

L : 향진기업 노동력(人),

K : 고정자산+유동자산(억 원)

분석자료는 중국의 30개 省市 중 티벳자치구를 제외한 29개 성시의 향진기업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 Y는 향진기업의 생산총액을 사용하였으며, L은 향진기업의 연말노동인 수, 그리고 K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합인 총자산을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⁴⁵⁾

<표 IV-1>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한 생산요소투입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⁴⁶⁾ 각 모델의 결정계수가 0.9116~0.9798로 상당히

44) 고재모·이일영(1994, pp. 57-58).

45) 단, 1994년과 1993년에는 향촌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규모를, 1989~92년은 고정자산 규모만을 사용하였음. 渡辺利夫(1991, pp. 166-170)는 유동자본만을 사용하여 1980년대 향진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본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한편 보다 정확한 생산함수를 추정하려면 고정(유동)자산 규모가 아닌 감가상각을 감안한 실질자본스톡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중국에서 이러한 개념의 K를 추정하기란 매우 힘들.

46) 만일 생산함수를 노동만의 함수로 가정, 이를 추정할 수도 있음. 1978~96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향진기업의 생산총액 Y(억 원) 및 노동력 L(만 명)의 투입산출관계를 간단한 선형회귀함수를 통해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높아 향진기업의 생산에 대한 콥-더글라스 함수의 도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9~96년까지 8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노동과 자본 모두 상당히 유의한 변수임을 보였다. α 값은 0.217~0.595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이며, β 값은 0.566~0.993의 분포로 계수의 크기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추정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는 고정(또는 고정+유동)자본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을 제외한 생산요소의 투입을 자본 변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계수값과 t 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과 1994년을 제외한 고정계수의 경우 부호는陰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 1995년, 1996년에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만일 고정계수가 기술요인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향진기업의 경우 기술요인이 생산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alpha + \beta$ 값은 규모에 대한 수익여부를 나타낸다. 본 추정결과에서는 $\alpha + \beta$ 의 값이 1.107~1.211의 분포를 갖고 있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RS)이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 추정결과는 향진기업이 기술과 같은 질적인 측면

추정결과

$$Y = -15.065 \ln A + 2.676 \ln L \quad R^2 = 0.9028$$

(8.033) (12.566)

결정계수는 0.9028로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t 값은 1% 수준에서 유의함. 추정 결과를 통해 보면 $\ln L$ 의 파라미터 2.676은 노동력의 생산탄력성을 나타내는데, 노동력 1%의 증가가 생산을 2.676% 증가시킨다는 의미임. 이 추정식에서는 자본을 제외한 간단한 식이지만, 노동투입과 산출량의 관계에 있어서 수확체증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어 농정개혁 후에 생성된 향진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을 반증하고 있음.

보다는 노동과 자본(원자재 포함)의 양적인 투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1989~96년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V-1> 향진기업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연도	A	노동	자본	결정계수	$\alpha + \beta$
1989	-0.643 (1.413)	0.322* (1.904)	0.870*** (5.248)	0.9495	1.192
1990	-0.634 (1.475)	0.273 (1.672)	0.929*** (5.749)	0.9531	1.202
1991	-0.562 (1.693)	0.217* (1.762)	0.993*** (8.235)	0.9715	1.210
1992	-0.255 (0.466)	0.563*** (4.943)	0.566*** (5.502)	0.9116	1.129
1993	1.200* (1.752)	0.408** (2.460)	0.699*** (5.206)	0.9290	1.107
1994	0.565 (1.173)	0.595*** (4.343)	0.598*** (4.556)	0.9427	1.193
1995	-0.261** (2.150)	0.506*** (5.863)	0.681*** (8.074)	0.9798	1.187
1996	-0.759** (2.557)	0.549*** (5.056)	0.662*** (6.845)	0.9786	1.211

주: 1) ()안은 t값.

2) 유의수준은 *: 0.05%, **: 0.01%, ***: 0.005%임.

2. 鄉鎮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가. 중국의 산업정책과 향진기업의 등장

본 절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산업간 이윤을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산업내 독점구조가 경쟁적으로 전환된다면 향진기업이 그 자체의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전체 산업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⁷⁾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생산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자본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자본은 매우 빈약한 반면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에 비교우위를 갖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실패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유기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화의 생산 및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가격설정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동시에 그 초과이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진입을 규제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의 향진기업은 생산활동이 농업생산 및 농민의 생활에 관련된 분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혁정책의 시행으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었으며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⁴⁸⁾ 향진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규모 및 자본력에서 열세에 있지만 지

47) Whiting(1996)은 향진기업은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연성예산계약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최종 수취자(residual claimant)인 지방정부와의 담합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방정부의 지원과 국유기업과는 달리 사회복지 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독점체제의 근간이었던 초과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산업의 투자자본당 이윤이 균등화되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본 절에서는 향진기업의 진입이 산업간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⁴⁹⁾ 이하에서는 중국 광공업 분야 별로 향진기업의 진입 정도를 개괄하였다. 또한 산업조직론의 측면에서 시장구조의 동태변화에 관한 분석을 이용, 향진기업의 진입을 규정하는 요인과 그 진입이 산업간 이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나. 鄉鎮企業의 진입 현황

개혁·개방에 따라 향진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1995년 향진기업⁵⁰⁾의 공업생산액이 전공업생산액(6조 7,237억 元)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 달하였다. <표 IV-3>과 <표 IV-4>는 중국 공업분야에서 향진기업의 지위가 1986~95년까지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⁵¹⁾

48) 이 당시에는 社隊企業이었음.

49) 중국경제의 변화를 산업조직론적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는 Naughton(1982)이 있음.

50) 본 장에서 다루는 향진기업의 범위는 鄉營企業과 연간 상품판매량이 100만 元 이상인 村營, 農村合作經營, 農村個體工業企業 등임.

51) 본 자료 중 1986년 자료는 『중국통계연감』과 『중국공업통계연감』을 참조하였으며, 1995년 자료는 『中華人民共和國 1995年第3次全國工業普查資料匯編』을 참고하였음. 『공업보사』는 『중국공업통계연감』의 후속 통계집으로 공업통계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한편 1986년 공업통계연감에서는 공업을 40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으며, 1995년의 공업보사에서는 공업을 37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는바, 본 자료에서는 이 중 서로 연관되지 않는 6개 항목을 제외한 31개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음. 또한 표에서 전체 생산액은 중국 전체의 향, 향급이상 및 연간 상품판매액이 100만 元 이상인 村辦·私營·

<표 IV-2> 1995년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전체생산액 (억 元)	향진기업생산액 (억 元)	향진기업구성비 (%)	향진비율 (%)
합 계	67,241	23,927	61.1	35.6
경공업	29,726	12,081	57.6	40.6
중공업	37,516	11,846	64.6	31.6
대형기업	21,828	640	4.0	2.9
중형기업	9,078	1,390	9.5	15.3
소형기업	36,336	21,897	62.8	60.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 1995年第3次全國工業普查資料匯編』(1997).

1995년 향진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61.1%(향진기업 구성비)에 달하였다. 경공업에 종사하는 향진기업의 생산액은 1조 2,081억 元으로 향진비율은 40.6%이며 전체기업 중 57.6%가 향진기업이었다.⁵²⁾ 중공업의 경우 향진비율과 향진기업 구성비는 각각 31.6%, 64.6%였다. 향진기업의 구성비가 중공업에서 높은 이유는 대형 국유기업의 하청을 받는 소규모 향진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 향진기업의 지위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형기업에 비해 소형기업에서 향진기업의 구성비 및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4>를 통해 산업별로 향진기업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 향진기업의 생산액이 높은 산업은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2,760억 元), 방직업(2,285억 元), 기계공업(2,185억 元), 금속제품업(1,577억 元), 화학공업(1,292억 元) 등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0.25억 元), 목재·벌채운반업(5억 元), 연초가공업(5억 元) 등은 생산액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合作企業·個體企業 등을 포함함.

52) 향진비율은 향진기업의 생산액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됨.

$$\text{향진비율} = \frac{\text{향 소재 기업+연간 상품판매액이 100만 元 이상인 村辦, 私營, 合作企業, 個體企業}}{\text{중국 전체기업 - 연간 상품판매액이 100만 元 미만인 村辦, 私營, 合作企業, 個體企業}}$$

향진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향진기업 구성비)이 높은 산업으로는 비금속광물채굴선풍업(84.8%), 석탄채굴선풍업(77.8%), 철금속광물채굴선풍업(77.2%),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77.3%), 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71.1%) 등이다. 반면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8.6%)과 연초가공업(17.5%)은 향진기업의 구성비가 낮다.

이상을 통해 향진기업이 어떠한 산업에서 발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을 비롯하여 여타 형태의 기업에 대해 해당 산업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전체 생산액에서 점하는 향진기업의 생산액비율(향진비율)을 정의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였다.

향진기업의 전체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향진비율)이 높은 산업은 비금속광물채굴선풍업(74.5%), 가구제조업(67.2%), 목재가공업(63.8%),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61.6%), 금속제품업(60.9%) 등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연초가공업, 전력·증가·열공급업 등은 향진비율이 낮다.

<표 IV-3>과 <표 IV-4>를 통해 1986년과 1995년의 향진비율을 비교해서 보면 그 동안 향진비율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³⁾ 또한 같은 연도에도 향진기업의 진입수준을 나타내는 향진비율이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진입수준의 차이는 산업간 이윤율의 평균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경제의 효율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 점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53) 1986년도 향진기업 자료는 鄉辦 및 村辦企業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1995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V-3> 1986년도 산업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1986			
	전체생산액 (억 元)	향진기업 생산액(억 元)	향진기업 구성비(%)	향진비율 (%)
1. 石炭採掘選鑛業	260	54	3.0	20.8
2.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232	0	0.0	0.0
3. 鐵金屬鑛物採掘選鑛業	22	6	0.3	28.0
4. 非金屬鑛物採掘選鑛業	46	7	0.4	15.7
5. 木材벌채운반업	65	0	0.0	0.0
6. 식품제조업	765	118	6.6	15.5
7. 음료제조업	180	32	1.8	17.9
8. 연초가공업	225	0	0.0	0.2
9. 방직업	1246	231	12.9	18.6
10. 의류 및 섬유제품제조업	214	60	3.3	27.9
11. 피혁, 모피 및 그 제품업	116	30	1.7	25.9
12. 목재가공업	77	25	1.4	32.9
13. 가구제조업	61	21	1.2	34.6
14. 제지 및 종이제품업	200	44	2.5	22.1
15. 인쇄업	103	17	0.9	16.5
16. 문교체육용품제조업	49	11	0.6	23.3
17. 전력, 증기, 열공급업	311	5	0.3	1.8
18. 석유, 코크스, 석탄제조업	327	3	0.0	0.9
19. 화학공업	666	67	3.7	10.0
20. 의약공업	154	0	0.0	0.0
21. 화학섬유공업	99	0	0.0	0.0
22. 고무제품업	155	15	0.8	9.5
23. 플라스틱제조업	196	62	3.4	31.6
24. 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674	37	2.1	5.5
25.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241	23	1.3	9.5
26. 금속제품업	332	120	6.7	36.2
27. 기계공업	1104	198	11.0	17.9
28.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55	24	1.3	6.8
29. 전기기계제조업	430	65	3.6	15.2
30. 전기 및 통신설비제조업	249	17	0.9	6.7
31. 측량기계제조업	74	7	0.4	9.0

자료: 『鄉鎮企業年監』(1987).

<표 IV-4> 1995년도 산업별 향진기업의 생산액 및 구성비

	1995			
	전체생산액 (억 元)	향진기업 생산액(억 元)	향진기업 구성비(%)	향진비율 (%)
1. 石炭採掘選鑛業	1,350	378	28.0	77.8
2.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1,429	0.25	0.0	8.6
3. 鐵金屬鑛物採掘選鑛業	578	291	50.3	77.2
4. 非金屬鑛物採掘選鑛業	656	489	74.5	84.8
5. 木材伐採運搬業	166	5	3.0	35.9
6. 식품제조업	1,243	504	40.5	47.6
7. 음료제조업	1,284	295	23.0	59.4
8. 연초가공업	1,007	5	0.5	17.5
9. 방직업	5,492	2,285	41.6	60.8
10. 의류 및 섬유제품제조업	2,170	1,213	55.9	53.9
11. 피혁, 모피 및 그 제품업	1,379	755	54.7	58.5
12. 목재가공업	624	398	63.8	70.8
13. 가구제조업	415	279	67.2	61.9
14. 제지 및 종이제품업	1,392	671	48.2	65.5
15. 인쇄업	530	185	34.9	30.9
16. 문교체육용품제조업	520	265	51.0	52.2
17. 전력, 증기, 열공급업	2,448	68	2.8	52.6
18. 석유, 코크스, 석탄제조업	2,153	205	9.5	70.5
19. 화학공업	4,410	1,292	29.3	56.5
20. 의약공업	1,029	182	17.7	32.3
21. 화학섬유공업	871	204	23.4	60.2
22. 고무제품업	764	272	35.6	55.4
23. 플라스틱제조업	1,679	895	53.3	60.0
24. 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5,777	1,655	28.6	71.1
25.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4,478	2,760	61.6	77.3
26. 금속제품업	2,589	1,577	60.9	62.6
27. 기계공업	5,272	2,185	41.4	56.8
28.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707	770	20.8	44.9
29. 전자기계제조업	3,178	1,254	39.5	48.4
30. 전기 및 통신설비제조업	2,692	346	12.9	34.8
31. 측량기기제조업	497	132	26.6	31.3

자료: 『鄉鎮企業年監』(1996).

다. 향진기업의 진입과 이윤율 변화

1) 가설 설정

앞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향진기업의 발전이 국유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독점시장에 대한 진입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간 이윤율이 균등화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⁵⁴⁾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진기업의 진입에 따른 산업간 이윤율 변화를 살펴본다. 산업별 향진기업의 진입 정도는 향진비율(전체생산액 중 향진기업의 생산액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추정모델은 大塚啓二郎, 劉德强, 村上直樹(1995) 및 Geroski et al.(1987)등이 사용한 바 있는 시장구조의 동태변화에 관한 모델로 시장집중도의 변화요인, 이윤율의 변화요인 및 이들의 동시결정성을 분석하고 있다.

시장구조의 변화를 향진비율의 변화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균형모델을 설정하였다.

$$X - X_t = \lambda [X^* - X_t] \text{ ----- (1)}$$

여기에서 X는 현재 시점의 향진비율, X_t 는 과거의 향진비율, X^* 는 조정비용이 포함된 향진비율의 최적수준, λ 는 조정계수이다. 이 모델의 안정성은 $0 < \lambda \leq 1$ 을 가정하고 있다. 즉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향진비율은 그 최적수준 X^* 에 대해서 $\lambda \times 100\%$ 로 조정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X^*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본집약도, 지식집약도, 산업별 평균기업규모, 정부의 정책 등을 상정할 수 있다.

54) Naughton(1985, pp. 223-252).

$$X^* = f (KLR, RDI, SIZE, PDY) \text{ ----- (2)}$$

여기에서 KLR은 자본·노동비율, RDI는 R&D와 생산액비율(R&D 집약도), SIZE는 평균기업규모, PDY는 산업정책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이들 변수를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진비율이 높은 산업은 노동집약적(KLR이 낮은) 산업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간 연구개발(R&D)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RDI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향진기업은 기술적 축적이 결여되어 있어 연구개발이 중요한 산업에 진입하기 곤란할 것이다.

셋째, SIZE를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평균적 기업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기존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규모의 비경제산업에서 비효율적인 거대 국유기업이 존재한다면 향진기업의 진입은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⁵⁵⁾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련 산업 및 연초가공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유기업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산업의 경우 향진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더미(PDY)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2)식을 선형함수로 나타내면 (3)식과 같다.

$$X^* = \alpha_0 + \alpha_1 KLR + \alpha_2 RDI + \alpha_3 SIZE + \alpha_4 PDY \text{ ----- (3)}$$

55) 大塚啓二郎, 劉德強, 村上直樹(1995, p. 175)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비경제산업으로 공작기계산업을 지적함.

(3)식을 (1)식에 대입하여 구체적인 추정방정식을 도출한다.

$$X = \beta_0 + \beta_1 KLR + \beta_2 RDI + \beta_3 SIZE + \beta_4 PDY + \beta_5 X_t \quad (4)$$

(4)식의 계수와 (3)식 및 (1)식의 계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eta_i = \lambda \alpha_i \quad (i=0, 1, 2, 3, 4), \quad \beta_5 = 1 - \lambda \quad (5)$$

이상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계수추정식의 기대되는 부호는 $\beta_1, \beta_2, \beta_4$ 는 음이 되고 β_3 은 양 또는 음의 부호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향진기업의 진입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향진기업의 행동이 경제합리성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면, 그 진입이 산업의 경쟁률을 높여 초과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산업간 이윤율을 설명하는 다음의 모델을 설정한다.

$$P = \delta_0 + \delta_1 X + \delta_2 SIZE + \delta_3 PDY \quad (6)$$

이 식에서 P는 현재의 자본이윤율을 나타내며, 다른 기호의 정의는 위와 같다. 여기에서 δ_1 의 추정치는 음의 부호가 기대된다. 평균기업규모(SIZE)의 계수 δ_2 는 모델(4)와 마찬가지로 양 또는 음의 부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정책더비(PDY)의 계수 δ_3 은 진입규제의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이 광업의 경우처럼 원재료 가격은 낮고, 제품 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부호의 방향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모델 (7)은 향진비율의 결정모델 (4)에 비해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

는 자본노동비율(KLR) 및 R&D 집약도(RDI)가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향진비율을 통해 그 간접적인 효과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모델 (4) 및 (7)을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추정하였다.

2) 데이터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표 IV-4>의 31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진비율은 <표 IV-4>에 나타나 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는 『中華人民共和國 1995年第3次全國工業普查資料匯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향진비율의 정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X는 1995년도 값, X-t는 1986년도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86~95년까지 10년간 향진비율의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윤율은 분모의 경우 순고정자산액(年末固定資產原價) 및 유동자산액(年末流動資產合計)의 합계인 총자산액을 분자는 이윤총액을 대입하였다.

자본노동비율(KLR)은 위에서 정의한 총자산액을 분자에, 연말 종업원수(從業人員年末人數)를 분모로 하였다(1,000元/人, 1995). 평균기업규모(SIZE)는 1기업 당 생산액(工業總產值: 億元, 1995)을 사용하였다. R&D 생산액비율(RDI)은 분자에 技術開發經費支出總額을 분모에는 생산액을 사용하였다. 정책더미(PDY)는 석탄채굴선풍업,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연초가공업, 석유·코크스·석탄제조업, 전력·증기·열공급업 등 5개 산업을 1, 나머지 산업을 0으로 하였다.

3) 추정결과

(4)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a)와 (a')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a)는 $\beta_5 = 0$ ($\lambda=1$)인 경우이고, (a')는 $\beta_5 \neq 0$ ($0 < \lambda < 1$)인 경우이다.

추정결과(a)를 보면, KLR, SIZE, PDY 변수는 예상과 같은 부호를 나타

$$(a) X_t = 46.82 - 0.68*KLR + 141.55*RDI - 1.07*SIZE - 23.82*PDY$$

(9.59) (2.16*) (0.25) (0.54) (2.43*)

$$R^2 = 0.4498$$

$$(a') X_t = 20.58 - 0.03*KLR - 318.19*RDI - 0.26*SIZE - 18.97*PDY + 1.31*X_{t-1}$$

(3.64) (0.10) (0.83) (0.19) (2.86***) (5.71***)

$$R^2 = 0.7610$$

주: 1) ()안은 t값.

2) 유의수준은 *: 0.05%, **: 0.01%, ***: 0.005%임.

낸 반면 RDI 변수는 양의 부호를 가졌다. 그러나 RDI 변수는 t값이 낮아 유의하지는 않았다. t값이 유의한 변수는 KLR 및 PDY로 결국 1995년도 산업별 향진비율은 산업별 자본노동비율과 정책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가정과 일치한다.

추정결과(a')에서는 (a)의 결과와 같이 KLR, SIZE, PDY 변수의 부호는 예상과 같았고, RDI 변수는 반대의 부호를 가졌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PDY와 X-t 변수는 유의한 수준을 보여 향진비율이 정책변수와 과거의 향진비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OLS 추정결과 대체로 향진비율을 설명하는 변수의 유의성이 가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와 (a')의 차이는 조정계수 λ 의 값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λ 값은 1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⁵⁶⁾ 그러나 λ 가 0과 1 사이에 있어 X-t 변수를 사용할 경우 임의의 해당연도에 따라 추정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 여기에서는 두 가지 모두 추정하였다.

56) 大塚啓二郎, 劉德強, 村上直樹(1995)은 $0 < \lambda < 1$ 로 추정함.

다음으로 이윤율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모델(6)을 검증한다.

$$(b) \quad P = 0.03 - 0.00004 * X_t + 0.006 * SIZE + 0.01 * PDY$$

$$(4.57) \quad (0.38) \quad (0.71) \quad (1.07)$$

$$R^2 = 0.0751$$

주: 1) ()안은 t값.

2) 유의수준은 *: 0.05%, **: 0.01%, ***: 0.005%임.

추정결과(b)의 변수를 살펴보면 향진기업의 비중이 작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정책더미가 있는 경우에 이윤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수의 t값이 낮아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과 해석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세운 향진기업에 대한 가정이 상당부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향진기업의 진입 요인을 추정한 결과 추정식 (a)에서는 자본노동비율과 정책변수가 유의하였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정책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산업일수록 향진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추정식 (a')에서는 정책변수와 이전의 향진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향진기업의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향진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현재에도 향진기업에 대한 유인이 강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 추정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규모에 따른 비경제가 나타났다는 것도 가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산업별 향진기업의 진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비교우위정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산업간 이윤율 균등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향진기업의 진입에 따라 국유기업의 독점이윤이 감소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첫째, 향진기업의 신규진입이 산업간 이윤율 균등화와 무관하다기보

다는 국유기업이 견고하게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향진기업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진입하더라도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상당수의 향진기업이 해당산업에서 국유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하청이나 부품공급업체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이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당초 향진기업의 목표는 국내시장이었으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생산이 증가하고 품질이 향상되면서 점차 판매망을 해외로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선진경영시스템과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 국제화 정의

14대 全人大에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국제시장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진기업은 국내는 물론 점차 국제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국제화를 국내생산·국내판매 → 국내생산·수출 → 대외진출·직접투자로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⁵⁷⁾

梁東·蘇長權(1996)은 국제화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⁵⁸⁾

간접적 또는 수동적인 수출입 단계에서는 기업이 외국상과의 직접적인

57) 張玉春(1993).

58) 梁東·蘇長權(1996, pp. 25-26).

연계없이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와 업무관계를 맺는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국제업무부문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출부문이 없이 주로 기업내부의 기존부문에 위탁 또는 의뢰하여 수출입업무를 처리한다.

직접적 또는 능동적인 수출입 단계에서는 기업이 여전히 수출입을 위주로 국제무역 전문가를 필요로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상 및 소비자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판매망을 설립하여 세계시장을 개척, 대외무역을 확대해 간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아직 국외에 상설 지사를 설립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시장을 이해하고, 기업내부에도 전문적인 부서나 수출입부문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비록 국제적 이해관계가 증대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내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직 국내기업이다.

해외지사 설립단계에서는 국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기술 또는 관리경험을 제공한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해외기업을 만들며, 기업내부에 국제부를 설립하여 관련사무를 처리한다. 국제방면의 경영업무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숙한 다국형 단계에서는 국제무역과 투자업무의 비중이 국내업무를 초과하여 기업은 더 이상 외국무역을 겸한 국내회사가 아니라 국제적 이익에 관계하는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한다.

또한 張玉春(1996)은 국제화의 과정을 제품수출 단계와 국외생산 단계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각 단계를 다시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제품수출의 1단계에서는 당초 향진기업은 수출을 할 수 있으나 자체적인 판로개척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허가도 없기 때문에 外貿公司나 수출입허가를 획득한 기업을 통해 간접적인 수출만 가능하다.

그러나 향진기업이 제품수출 경험과 자금축적이 확보됨에 따라 국제시

장에서 판매력을 확보, 外貿公司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2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향진기업은 국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수출입 허가권을 부여받게 되고 점차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이렇게 국제시장에서의 판매에 관한 이해·경험과 자금을 확보한 기업은 국외생산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1단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및 그 국가에서의 생산·판매이며, 그리고 다시 진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경영은 자금조달, 기술, 비용, 판매시장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서 분업을 전개하여 국제화의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최근 다국적기업이 경영국제화를 통해 현지기업 또는 제3국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진기업의 국제화를 논할 경우, 대외개방정책의 전개와 향진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 측면에서 외자도입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외개방정책은 국제분업을 통한 근대화·공업화전략에 있어서 수출확대와 외자도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진기업은 중국의 연해지역 개발전략 이후 외자의 도입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향진기업이 국유의 外貿公司를 경유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三資企業(합작, 합자, 독자)의 형태를 갖추으로써 독자적으로 수출권을 확보해 왔다. 더욱이 국가의 향진기업에 대한 금융규제와 외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세제혜택 등의 우대조치가 향진기업의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이러한 현실의 제도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향진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국내생산·판매 → 국내생산·수출 → 대외진출·직접투자의 과정에 있어 특히 수출발전에서 외자도입의 역할과 기능이 검토되어야 하며, 본 장에서는 향진기업의 국제화로 대외무역의 발전, 외자도입 및 대외진출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2. 대외무역의 발전

개혁·개방 이후 향진기업의 발전에 따라 향진기업의 대외무역도 증가하였다. 1986~96년까지 11년간 중국 전체 수출이 11배 증가하는 동안 향진기업의 수출은 59배나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에서 47.7%로 증가하였다(표 V-1).

1990년 초에는 1988년의 경기과열에 의한 긴축경제정책과 1989년의 천안문 사태의 영향으로 향진기업의 수출은 정체되었으나,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1992년과 1993년 향진기업의

<표 V-1> 향진기업의 수출 추이

연도	중국전체		향진기업					
	수출 (억 元)	수출 (억 元, %1)				생산대비 수출비중 (%)	수출기업 수(만 개)	삼자기업 수(개)
			직접수출 비중(%)	外貿부문 비중(%)	간접수출 비중(%)			
1986	1,082	99.5 (9.2)	71.4	65.5	28.6	2.8	1.0	2,405
1987	1,470	162 (11.0)	73.5	63.0	26.5	3.4	1.8	2,996
1988	1,767	269 (15.2)	-	-	-	4.1	2.5	4,762
1989	1,956	371 (19.0)	73.1	59.1	26.9	5.0	4.9	5,915
1990	2,986	486 (16.3)	75.0	62.0	25.0	5.1	5.8	6,987
1991	3,827	670 (17.5)	75.0	50.8	25.0	5.8	8.5	8,500
1992	4,676	1,192 (25.5)	73.1	62.2	26.9	6.8	8.5	15,000
1993	5,285	2,193 (41.5)	64.6	48.6	35.4	6.9	13.5 ²⁾	27,506
1994	10,422	3,398 (32.6)	67.2	41.4	32.8	12.5	11.1	29,400
1995	12,452	5,395 (43.3)	64.4	42.2	35.6	9.4	11.8	38,743
1996	12,576	6,008 (47.7)	70.6	43.3	29.4	8.0	15.0	39,508

주: 1) 전체 수출에서 향진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 이 수치는 집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9만 개 내외일 것임.

자료: 『中國鄉鎮企業年監』(각년호).

수출증가율은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각각 77.9%, 84.0%를 기록하였다. 한편 1995년 7월에 개최된 全國鄉鎮企業輸出工作會議에서는 2000년에는 향진기업에 의한 수출액이 1조 2500억 元,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나 수출과 외화획득면에서 향진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⁵⁹⁾

중국통계에서는 향진기업의 수출형태를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기업의 수출제품을 부분 가공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수출에 관련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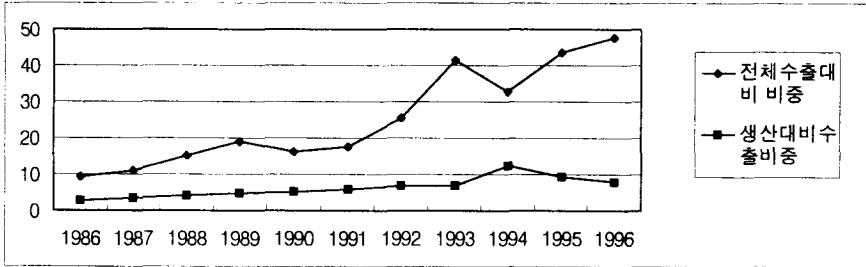
그러나 직접수출의 경우도 3자기업이나 일부 수출입허가권을 가진 기업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의 外貿公司나 수출입허가권을 소유한 기업을 통해 自社제품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직접수출의 대부분이 外貿公司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外貿公司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수출에서 외부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외화획득정책에서 향진기업이 자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자기업으로서 향진기업이 外貿公司를 경유하지 않고 自社제품을 수출하는 부분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허가권을 획득한 향진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98년부터 사영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입허가권을 주기로 하였는바, 앞으로 향진기업의 (순수한) 직접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은 향진기업의 수출이 중국 전체수출 및 향진기업의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이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수출대비 비중은 1994년을 제외하고는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

59) 『經濟日報』(1995. 7. 5).

<그림 V-1> 향진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산대비 수출비중은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⁶⁰⁾ 이는 수출증가의 원인이 생산과 수출 간의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증대 효과에 있음을 의미한다.

향진기업의 주요 수출품은 경공업품·의복·방직품·공예품 등인데, 이들 품목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으로 향진기업의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표 V-2>에서 의복과 경공업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에는 각각 13.5%, 13.4%에서 1996에는 16.1%, 20.1%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공예품과 방직품의 비중은 각각 13.0%, 17.1%에서 9.2%, 11.3%로 감소하고 있다.⁶¹⁾ 향진기업의 수출상품은 국제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그 종류와 품질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단순노동 제품에서 점차 신기술을 응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6년 향진기업 전자·기계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증가율에 비해 7.4% 포인트 높다. 이처럼 향진기업의 수출은 방직 등 경공업제품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계제품

60) 향진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은 다른 한편으로 향진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61) 향진기업의 수출품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특화되어 있음을 중국정부의 도·농 분리정책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Zhang(1992)이 있음.

<표 V-2> 향진기업의 품목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의복	13.5	14.9	15.6	16.6	15.2	15.5	16.1
공예품	13.0	12.4	11.1	9.8	9.9	9.1	9.2
화학공업품	5.2	3.1	5.6	5.0	5.6	5.3	5.5
견직물	6.1	5.2	4.9	3.8	3.1	3.2	2.2
경공업품	13.4	15.5	15.6	20.3	16.8	19.5	20.1
방직품	17.1	16.3	15.6	13.2	14.5	13.0	11.3
기계	5.6	5.8	6.1	6.6	8.0	6.7	7.1
식품	8.8	8.1	6.7	5.9	7.0	6.7	6.8
광물품	5.2	4.3	3.4	3.1	3.3	3.5	4.4
특산·축산품	5.2	4.7	3.7	3.5	4.9	3.5	4.5
기타	7.0	9.9	11.7	12.1	11.4	14.0	12.9

자료: 『鄉鎮企業年監』(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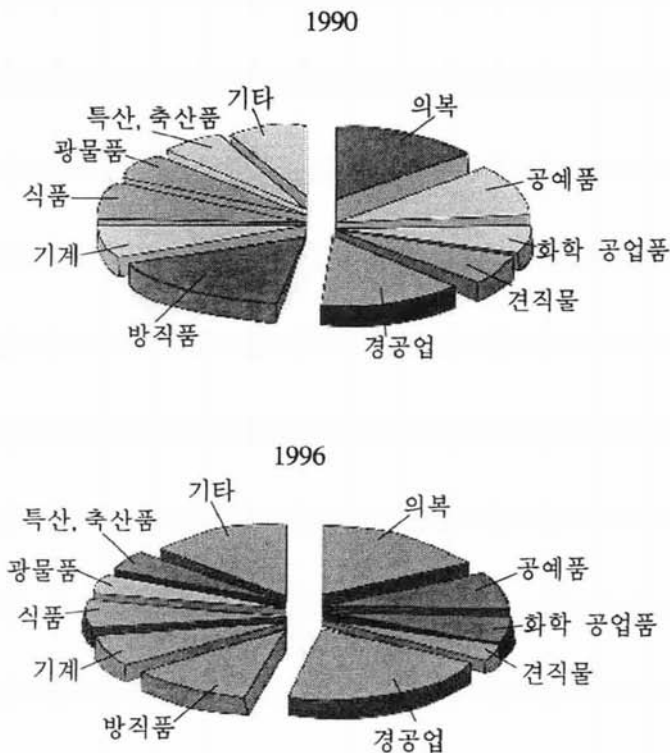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단계는 아시아 신흥공업지역의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현상과도 비슷하다.

향진기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왔으나 그 발전은 상대적으로 연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표 V-3>의 지역별 수출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6년도 향진기업의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소·광둥·절강성 등 전통적으로 향진기업이 발달한 지역인 반면 향진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안휘·내몽고·광서 등 중서부 내륙지역이다.⁶²⁾ 이는 동부 연해지역의 수출이 아직도 절대액을 차지하지만,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 지

62) 이러한 면에서 향진기업의 국제화(수출증가)가 지역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Zhang, 1992, p. 739).

역 향진기업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동부 연해지구의 수출액은 5,398억 元으로 전체 상품수출액의 89.9%에 달하며, 중·서부지구의 상품수출액은 499억 元과 111억 元으로 각각 8.3%,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동부지구의 점유 비율은 1.8%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은 각각 1.2% 포인트, 0.8%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V-2> 향진기업의 수출품 구성 비교



<표 V-3> 지역별 향진기업의 수출 순위(1996)

지역별 수출 순위		1989년 대비 수출증가율 순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江蘇 (21.6)	1	安徽
2	廣東 (17.6)	2	內蒙古
3	浙江 (13.3)	3	廣西
4	山東 (10.4)	4	福建
5	福建 (8.8)	5	廣東
6	上海 (6.1)	6	陝西
7	河北 (4.0)	7	山東
8	遼寧 (3.8)	8	浙江
9	天津 (2.2)	9	吉林
10	安徽 (2.2)	10	河北
11	河南 (2.0)	11	江蘇
12	湖北 (1.5)	12	河南
13	湖南 (1.5)	13	黑龍江
14	廣西 (1.1)	14	海南
15	四川 (0.7)	15	湖北
16	北京 (0.6)	16	遼寧
17	山西 (0.6)	17	湖南
18	黑龍江(0.5)	18	山西
19	江西 (0.4)	19	江西
20	內蒙古(0.4)	20	寧夏
21	吉林 (0.4)	21	上海
22	陝西 (0.2)	22	雲南
23	雲南 (0.1)	23	天津
24	貴州 (0.1)	24	貴州
25	甘肅 (0.1)	25	新疆
26	青海 (0.04)	26	甘肅
27	寧夏 (0.03)	27	青海
28	新疆 (0.02)	28	四川
29	海南 (0.01)	29	北京

주: 괄호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鄉鎮企業年監』(각년호).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앞서 향진기업 국제화의 제1단계인 대외무역의 발전에 대해 고찰했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기술, 경영관리 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하였던 외국자본은 향진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향진기업은 투입요소면에서 농촌의 유희인력을 노동으로, 농촌개혁을 통해 획득한 농업잉여를 자본으로 하고 있다⁶³⁾. 그러나 노동량에 비해 축적된 자본량은 절대적으로 부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절실하였는바, 외국자본의 유입은 향진기업의 제품의 질 향상과 생산성 그리고 수출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에 주력하는 향진기업 즉 3자 향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3자 향진기업의 수는 1986년의 2,405개 社에서 1988년의 연해지역 개발전략, 1992년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급증하여 1994년 2만 9,400개 社, 1996년에는 3만 9,508개 社에 달하고 있다. 1996년 전국 향진기업 신규도입 외자는 1만 2,835건, 계약금액은 86억 元, 실행액은 80억 元이며, 신설된 삼자기업은 4,655개이며, 실제 이용외자 누계액은 310억 달러, 삼자기업 중 중외합작기업은 총 2,584건, 홍콩·마카오·대만 기업과의 합작기업은 4,464개이다.

三資 향진기업의 특징은 첫째, 유입된 자금이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지만1차, 3차산업으로의 유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해지역에서 내

63) 농업개혁 이전 중국 농촌의 농업잉여는 缺狀價格制로 인해 도시부문으로 이전 하였으나, 농가책임생산제 실시 이후 농업잉여를 농촌 자체 내에 축적할 수 있게 되었음.

<표 V-4>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6)

지역	계약액 기준		실행액 기준		실행액 누계 (백만 달러)
	건수(건)	금액(백만 달러)	건수(건)	금액(백만 달러)	
北京	347	11,176 (1.3)	726	9,329 (1.2)	53,601 (1.7)
天津	177	17,892 (2.1)	529	8,487 (1.1)	57,215 (1.9)
河北	619	57,482 (6.7)	1,418	32,427 (4.0)	67,174 (2.2)
山西	28	1,653 (0.2)	104	2,211 (0.3)	7,115 (0.2)
內蒙古	14	1,975 (0.2)	55	1,748 (0.2)	5,745 (0.2)
遼寧	487	73,485 (8.5)	1,859	24,144 (3.0)	140,989 (4.6)
吉林	48	3,386 (0.4)	157	7,081 (0.9)	9,447 (0.3)
黑龍江	94	3,453 (0.4)	152	4,742 (0.6)	12,368 (0.4)
上海	418	50,164 (5.8)	2,492	67,114 (8.3)	277,942 (9.0)
江蘇	1199	179,311 (20.7)	9,034	105,293 (13.1)	637,366 (20.7)
浙江	617	39,611 (4.6)	5,786	35,975 (4.5)	157,442 (5.1)
安徽	223	11,054 (1.3)	304	6,786 (0.8)	15,751 (0.5)
福建	381	45,159 (5.2)	3,324	35,151 (4.4)	244,367 (8.0)
江西	128	12,581 (1.5)	354	7,632 (0.9)	20,622 (0.7)
山東	794	76,918 (8.9)	4,166	53,996 (6.7)	219,001 (7.1)
河南	123	9,716 (1.1)	317	8,336 (1.0)	39,957 (1.3)
湖北	94	10,330 (1.2)	312	8,309 (1.0)	21,454 (0.7)
湖南	230	23,175 (2.7)	293	11,560 (1.4)	26,328 (0.9)
廣東	6571	222,602 (25.8)	7,541	363,814 (45.2)	1,000,093 (32.5)
廣西	42	3,743 (0.4)	146	2,816 (0.3)	8,432 (0.3)
海南	18	3,573 (0.4)	36	1,265 (0.2)	14,616 (0.5)
四川	62	1,151 (0.1)	208	2,275 (0.3)	16,736 (0.5)
貴州	2	29 (0.0)	18	45 (0.0)	352 (0.0)
雲南	10	570 (0.1)	31	1,353 (0.2)	2,066 (0.1)
陝西	96	2,639 (0.3)	97	2,531 (0.3)	13,033 (0.4)
甘肅	10	1,556 (0.2)	38	451 (0.1)	2,574 (0.1)
寧夏	3	- (-)	4	20 (0.0)	149 (0.0)
합 계	12,835	864,384	39,508	804,891	3,07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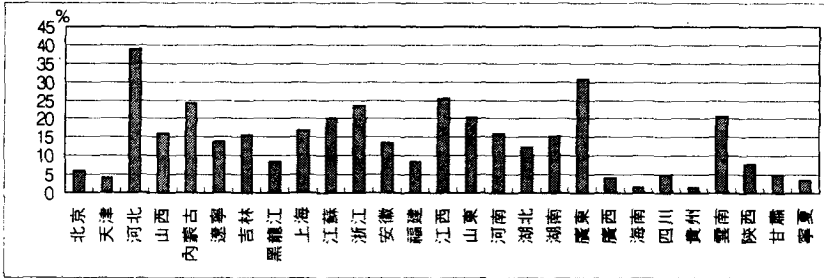
주: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鄉鎮企業年監』(1996).

특으로, 가공산업에서 자원개발분야로, 외국측 합작기업이 소기업에서 중 대형기업이나 다국적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이용외자구성도 변

<그림 V-3> 중국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향진기업의 비중

(1996년 실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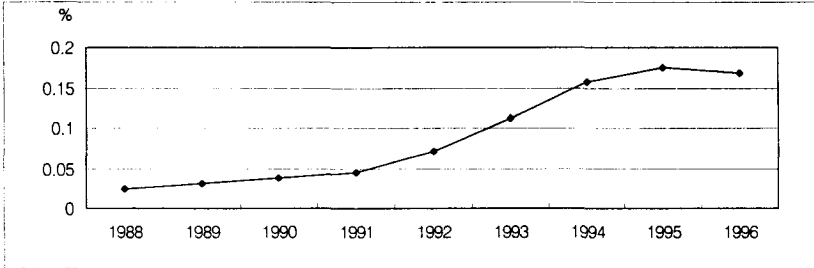


화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저급기술산업에서 점차 고급기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외자이용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한 자본의 도입에서 합자·합작 등 보다 긴밀화된 투자형태로 바뀌고 있다.

<표 V-4>는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투자유입 순위를 살펴보면, 계약액과 실행액 면에서 廣東省과 江蘇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지역은 계약액 면에서는 전체의 46.5%, 실행액 면에는 전체의 58.3%를 차지하였고, 실행액누계에 있어서도 광둥성(32.5%)과 강소성(23.7%)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귀주·운남·산서·사천 등 중서부 내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3>은 1996년도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 가운데 향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향진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 역시 하북(39.1%)이고, 광둥(31.0%)·강서(25.3%)·절강(23.7%) 등 연해지역이며, 반면 해남·귀주·감숙·영하·사천 등 내륙지역의 비중은 매우 낮다. 향진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향진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그 비중이 낮은 지역의

<그림 V-4> 전체 향진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추이



천진·사천 등 향진기업의 수가 적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자금부족의 보전, 자본형성, 외화획득, 고용증대, 기업의 경영관리, 기술수준의 향상, 인재양성, 세수의 증가, 시장활성화 등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⁶⁴⁾ 전체 향진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V-4>와 같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199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 96년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절대비중이 다수의 소기업인 관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0.2%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향진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자금획득·외화획득·기술수준의 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⁶⁵⁾ 자금획득이 가장 큰 이유는 향진기업을 비롯한 비국유기업이 1980년 이후 급성장함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정책이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진기업이 三資企業이 되면 외국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우대조치를 받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3자기업의 제품이라는

64) 全載旭(1998, p. 252).

65) 裴長洪(1992, pp. 49-55).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판매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향진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금부족의 해소, 선진설비의 도입에 의한 품질향상, 관리·노동규율 등의 수준이 향상되지만 장기적인 기업경영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경영기술의 향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둘만한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향후 향진기업이 위탁가공적인 생산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이 과제의 해결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4. 대외진출

향진기업 국제화의 1단계인 대외무역 발전에 이어 향진기업 국제화의 2단계인 대외진출에 대해 고찰한다. 향진기업의 대외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1단계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2단계의 대외진출은 그 역사가 매우 짧아 본격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은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음을 밝혀둔다.

1980년대 향진기업에 의한 수출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에 따라 1990년대 들어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중국정부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는바, 1991년 10월과 1992년 7월에 농업부 鄉鎮企業司가 향진기업 국외설립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에 대해 처음으로 지도지침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91년까지 대외진출한 향진기업은 15개 社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는 150여 개 社로 1994년에는 886개 社로 급증했다. 대외진출한 향진기업은 江蘇, 天津, 浙江, 上海, 福建, 大連 등 향진기업이 발전한 연해지역에 집

중되고 있다.

특히 절강성의 경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1994년 말에는 66개 기업이 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설립한 국외기업의 수가 90여 개에 달했고, 그 규모와 수준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정보수집, 경로모색, 국외자원이용, 무역장벽을 피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⁶⁶⁾

정보수집, 경로소통, 수출확대의 실례로서는 寧波宇達기업이 1992년 홍콩에 意利寶무역유한공사를, 1993년 말에는 싱가포르에 싱가포르新時代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寧波宇達企業은 이들 자회사를 통해 샘플수집, 시장조사, 각종 무역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태국 등 주변 국가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무역장벽을 피하면서 상품수출을 확대시킨 실례로서는 寧波榮大針紡織집단공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설립한 BR 의류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방직물과 의류의 쿼터 제한을 피하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원료 획득 등 국외자원을 이용한 사례로서는 寧波興業집단공사가 멕시코의 풍부한 철강자원을 얻기 위해 멕시코에 四明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浙江偉星實業공사는 호주에서 어패류를 수입하기 위해 1993년 호주에 偉星實業公司를 설립한 것이다.

수송비를 절감한 사례도 있다. 寧波大中집단공사는 주요 생산품이 벨벳 완구인데, 充填원료를 수입해서 제작한 후 다시 수출하는 생산·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充填물질과 벨벳완구의 특징은 부피가 큰 반면 중량이 가벼워서 컨테이너 당 단가가 낮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수송문제가 경제성과 수출확대를 제약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寧波大中은 1992년 미국에 美國 大中玩具(뉴욕)公司를 설립

66) 王動仁, 王新亮(1995, pp. 72-73).

하여 완구의 充填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시장점유율을 높인 실례도 있는데, 中國飛躍재봉틀집단공사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중남미국가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현재 중남미 재봉틀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두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제화의 제1단계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향진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대외무역의 발전에서 대외진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가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향진기업이 대외진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시장에서의 생산·판매, 국제시장에서의 판매 등의 유통과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생산·경영관리 수준의 향상을 실현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비교적 갖추어진 江蘇省을 비롯한 연해지역에서는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江蘇省의 경우 섬유 등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와 대외진출기업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향진기업이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대외진출에도 도전하게 된 요인으로는 향진기업이 국유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대륙출신 화교의 존재라는 외부환경도 작용하였고 이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의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중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업부문으로 대표되는 근대부문의 비중은 적고 농업부문으로 대표되는 전통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중국이 수립된 1949년의 상황도 농업인구가 89.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이중경제였다. 더욱이 사회주의 중국이 이어받은 공업적 유산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착수했으며, 이에 필요한 공업화 자금원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이전된 농업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협상가격차를 통해 획득한 농업잉여가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메커니즘도 신농업정책의 실시로 인해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에 대한 농업잉여의 공헌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수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의 그것은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재정적자 누증에 대한 대책은 국가예산을 거치지 않는 ‘豫算外 投資’(지방정부, 국유기업의 국가예산외 투자에 있어서 自己資金에 의한 투자)의 확대였다. 이 豫算外 投資가 국유경제의 기본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豫算內 投資’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는 기업투자의 주요한 원천이 국가예산을 거치지 않는 豫算外 資金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豫算外 資金의 확대는 주로 국유기업 主管單位인 豫算外 資金 수입의 증대에 의한 것이며, 이처럼

국유 주관단위의 豫算外 資金이 증대된 이유는 경제개혁 이후 기업 자주권의 확대로 기업 留保利潤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부문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내 투자 비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국내은행 차관·외자·자기자본의 비율은 상승하였는데, 이는 투자자금의 조달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향진기업을 비롯한 비국유부문의 이윤 대부분이 自己投資로서 이용되었다. 全社會固定資產에 차지하는 국유부문의 비중 감소와 비국유부문의 비중 증가는 1970년대 말 이후 기본투자에 차지하는 豫算內 투자의 감소를 초래했다. 豫算內 투자 비중의 감소와 예산외 투자 비중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국가 蓄積機構의 역할이 약화된 데 반해, 자기투자·은행의 그 것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국유부문의 투자결정이 시장경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 공업생산액에서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하여 향진기업을 비롯한 비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진기업의 생산액은 1992년부터 비국유공업 생산액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이처럼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농촌지역에서 형성된 농촌자금과 잉여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발전한 향진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과잉노동력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농촌에는 방대한 과잉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신농업정책의 실시에 따라 家族農의 부활과 人民公司의 붕괴를 통해 과잉노동력이 일거에 顯在化했기 때문이다. 향진기업은 이러한 과잉노동력의 흡수처로서 농촌 과잉노동력의 감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진기업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향진기업의 노동력은 1984년 5,208만 명에서 1996년 1만 3,508만 명으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에 8,300만 명의 노동력을 향진기업이 흡수했다. 이와 같이 향진기업은 농촌지역 내부의 농업부문에서 농촌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을 이동시켜,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과잉노동력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향진기업의 발전 정도는 각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해지역의 발전이 내륙에 비해 빠르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괄목할 만한 지역은 江蘇省 남부지역으로, 이 지역의 농촌공업은 ‘蘇南모델’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둘째, 농업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以工補農’ 즉 공업으로 농업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는 공업이윤이 주수입원인 촌·향재정에서 농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지출내용은 水利 등 기반정비에 지출과 농업기계 구입보조, 농업소득보조 등이다. 1978~88년에 걸쳐 10년간 공업에 의해 농업을 보조한 자금은 162억 8천만 元이며, 이 액수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국가 투자액의 34%에 해당한다.⁶⁷⁾

셋째, 농촌의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농촌에는 인구가 많고 경지면적이 적은데다 농업의 노동력은 과잉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과잉노동력의 도시 이동을 저지하고 ‘離土不離鄉’이라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공업으로 鎮을 건설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진기업이 소도시 건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공공투자에 의한 공업화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공공투자에는 생활기반으로의 투자와 생산기반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진기업이 매년 소도시 건설에 사용하는 자금은 5억 元 이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넷째, 향진기업이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향진기업이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견인차로서 국

67) 關口尙志, 朱紹介文, 植草益 編(1992, p. 297).

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농촌개혁 이후 농촌지역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자본축적메커니즘에서 차지하는 향진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자본축적메커니즘의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농업과 국유기업에 이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은 농업부문 및 공업부문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농촌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가전략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진기업과 국유기업과의 관계는 하청을 받는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립한 경영실체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3자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특징이며, 비화교자본의 경우 향진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질·경영기술 수준의 향상을 이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3자기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 단계에 머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향진기업의 국제화가 아직 초보적인 만큼 우리 기업의 대향진기업 교류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향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대부분 저임금과 저지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진기업과 합작하기보다는 독자투자에 대한 선호가 강하였다.⁶⁸⁾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합작대상 기업이 없다는 점과 향진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 이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진기업이 중국경제(또는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대·임금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충분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향진기업이 무역·투자 등 국제

68) 한국기업의 대향진기업 진출 사례는 <부록 1> 참조.

화로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그 동안 우리 기업의 대향진기업 진출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진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향진기업을 단지 농촌에 있는 소규모 업체로 판단하기보다는 농촌지역의 잉여인력과 자본으로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群)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진기업중에는 대형국유기업 못지않게 생산과 판매가 대형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많이 있다. 특히 이들 향진기업은 국유기업과는 달리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물론 독자적인 해외판매망도 갖고 있다.

둘째, 대중진출의 다각화 측면에서 향진기업과 원활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대중투자는 주로 국내에서의 임금 압박을 벗어나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라인만을 이전하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에 접근하고 중요 원자재의 개발수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형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진기업 중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구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투자는 않더라도 향진기업과 하청, 원자재공급 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바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가 향진기업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진기업과의 협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지역의 시장성을 감안한 기초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단일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지역보호주의 경향이 강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향진기업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역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역에 따라 생산요소의 부존이 다르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범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관리하는 향진정부의 경영에 대한 이해 정도와 관리상의 합리성 여부는 향진기업과의 협력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진기업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향진기업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의 향진기업에 대한 연구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상해 및 강소성 일대 향진지역에 투자한 사례를 조사하였지만, 각 지역별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參考文獻

< 국문 >

- 고재모·이일영. 1994.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근. 1994. 『중국경제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보근. 1994.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재욱. 1995. 「중국 경제체제 개혁과 향진기업의 발전」. 『중국연구』
1995년 봄호. 대륙연구소.
전재욱. 1998.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 일문 >

- 菊池道樹. 1992. 「中國における改革,調整政策のもとでの労働移動」.
『アジア經濟』第33卷 第4號.
田島俊雄. 1991. 「中國の投資·産業構造」. 石原亨一 編. 『中國經濟の多重構造』: pp. 67-73. 아시아經濟研究所.
渡邊利夫. 1987. 『開發經濟學』. 日本評論社.
渡辺利夫 編. 1991.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嚴善平. 1989. 「中國における都市化の展開と人口·労働力の移動」. 『アジア經濟』第30卷 第7號.
南亮進. 1981. 『日本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南亮進. 1990. 『中國の 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大塚啓二郎·劉德强·村上直樹. 1995. 『中國の ミクロ經濟改革』. 日本經濟新聞社.
池田誠外. 1985. 『中國工業化の歴史-近現代工業發展の歴史と現實』. 京都:法律文化社.
張毅. 1983. 「我國社隊企業的歴史, 現狀與今後的發展」. 『經濟調查』. 北

- 京:紅旗出版社.
- 全載旭. 1993. 「中國の經濟體制改革下における農村工業化の進展の分析-地域内労働移動と郷鎮企業の資金調達-」. 慶應義塾大學博士學位論文.
- 林信道. 1976. 「中國の資本調達構造-マネ-フロ-表による接近-」.
『中國の經濟發展と制度』. アジア經濟研究所.
- 加藤弘之. 1988. 「中國農村勞動力流動化現象」. 『國民經濟雜誌』1988年1月(57卷 第1號): pp. 88-90.
- 加藤弘之. 1990. 「中國經濟發展過程勞動力移動」. 『中國產業構造經濟發展戰略』. 日中經濟協會.
- 小島麗逸. 1988. 『中國經濟の改革』. 勁草書房.

<중문>

- 「關於實行政社分開建立鄉政府的通知」. 『國務院公報』1983年 第23號.
- 馮蘭瑞·姜渭漁. 1987. 「農業余剩勞動力轉移模式的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第5號.
- 「國務院關於農民進入集鎮落戶問題的通知」. 1984年 10月 13日.
- 周其仁·胡庄君. 1987. 「中國鄉鎮工業企業的資產形成,營運特征及其宏觀效應-對十省大型鄉鎮工業企業描樣調查分析」. 『中國社會科學』第6期』. 社會科學院.
- 梁 東·蘇長權. 1996. 「我國鄉鎮企業國際化經營的發展步驟」. 『鄉鎮企業與農場管理』1996년 6월: pp. 25-26.
- 張玉春. 1993. 「略論鄉鎮企業國際化」. 『鄉鎮企業與農場管理』. 第12期.
- 裴長洪. 「縱京近企業看鄉鎮工業國際化的初級形態與發展條件」.
『中國工業經濟研究』1992年 10期: pp. 49-55.
- 王動仁·王新亮. 1995. 「企業跨國經營趨勢對浙江鄉鎮企業發展的啓示」.
『農村經濟導刊』. 1995. 12.
- 第三次全國工業普查辦公室 編. 1997. 『中華人民共和國 1995年 第3次全國工業普查資料匯編』. 中國統計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2. 「中國共產黨第十一屆中央委員會第三次

- 全體會議公報.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6a. 「中共中央關於加快農業發展若干問題的決定」.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中)』.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86b. 「中華人民共和國憲法」.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86c. 「中共中央關於一九八四年農村工作通知」.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86d. 「中共中央國務院轉發農牧漁業部和部黨組(關於開創社隊企業新局面的報告)的通知」.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各年판).
- 中國農業出版社. 『中國鄉鎮企業年監』(各年판).
- 中國農業年鑑編輯委員會. 1981. 『中國農業年鑑』. 農業出版社.
- 『中國農村統計年鑑』 1986年.

< 영문 >

- Byrd, William A. and Qingsong Lin (ed). 1990. *China's Rural Industry: Structure, Development, and Reform*. Oxford.
- Chang, Chun and Yijiang Wang. 1994. "The Nature of the Township-Village Enterpris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pp. 434-452.
- Che, Jiahua and Yingyi, Qian. 1998. "Insecure Property Right and Government Ownership of Fi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No. 2, pp. 467-496.
- Chow, Clement Kong Wing and Michael Ka Yiu, Fung. 1998. "Ownership Structure, Lending Bias, and Liquidity Constraints: Evidence from Shanghai's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pp. 301-316.
- Geroski, P. A., R. T. Masson and J. Shaanan. 1987. "The Dynamics of Market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 Vol. 5, pp. 93-100.
- Hsiao, Cheng and Jicheng Qiu. 1998. "Share versus Residual Claimant Contracts: The Case of Chinese TV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pp. 317-337.
- Islam, Rizwanul and Huhui Jin. 1994. "Rural Industrialization: An Engine of Prosperity in Postreform Rural China." *World Development*, Vol. 22. No. 11, pp. 1643-1662.
- Lewis, A. W.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 22. No. 2, pp. 139-191.
- Naughton, Barry. 1985. "False Starts and Second Wind: Financial Reforms in China's Industrial System."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E. Perry and C. Wong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23-252.
- Naughton, Barry. 1992. "Implications of the State Monopoly over Industry and its Relaxation." *Modern China*, Vol. 14, pp. 14-41.
- Peng, Yusheng, Lynne G. Zucker and Michael R. Darby. 1998. "Chinese Rural Industrial Productivity and Urban Spillovers." *NBER Working Paper*, No. 6202.
- Ranis, G. and J. C. H. Fei. 1964. *Development of Labour Surplus Economy: Theory and Policy*. Richard Irwin.
- Sengupta, Jati K. and Bo Q. Lin. 1993. "Recent Rural Growth in China: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Small-scale Enterprises, 1980~86."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 7. No. 2, pp. 177-196.
- Smith, Stephen C. 1995. "Employee Participation in China's TVEs." *China Economic Review*, Vol. 6, pp. 157-167.
- Weitzman, Martin and Chenggang Xu. 1993. "Chinese Township-Village Enterprises as Vaguely Defined Cooperativ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pp. 121-145.

- Whiting, Susan H. 1996. "Contract Incentives and Market Discipline in China's Rural Industrial Sector." *Reforming Asian Socialism*. McMillan, J. and B. Naughton (e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Zhang, Xiaohe. 1992. "Urban-Rural Isolation and its Impact on China's Production and Trade Pattern." *China Economic Review*, Vol. 3, pp. 85-105.
- Zhou, Kate Xiao and Lynn T. White III. 1995. "Quiet Politics and Rural Enterprise in Reform China."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29, pp. 461-490.
- Zweig, David. 1991, "Internationalizing China's Countryside: The Political Economy of Exports from Rural Industry." *China Quarterly*, Vol. 128, pp. 716-741.

韓國企業의 對鄉鎮企業 진출 사례

1. 衣變時裝(上海)有限公司

衣變時裝(上海)有限公司(한국명 이랜드)는 上海市 閔行區 塘灣鎮 幸福村에 소재해 있으며, 투자규모는 200만 달러로 이 중 공장 자체에 대한 투자는 140만 달러이다. 주요 생산품목은 바지 등 의류이며, 내수와 수출비중은 각각 50% 정도이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는 130명, 영업직(중국내 영업 및 물류창고 관리)은 250명이다.

이랜드는 지난 1990년에 상해에 지사를 설립, 중국업체를 통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현지 법인(생산공장)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1994년 7월 설립되었는데, 굳이 수출판매를 마다하고 직접투자를 한 이유는 규정상(기업법) 내수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법인이 중국내에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현지 법인을 상해시 외곽인 閔行區 塘灣鎮 幸福村에 설립한 데에는 이 지역이 이랜드지사가 있는 상해시의 인근지역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현재의 공장은 이전에 진정부가 운영했던 향진기업의 공장으로 이랜드가 구입할 당시에는 이전의 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공장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랜드가 향진지역에 진출한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이 지역에 당시 본사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부지와 공장이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은 상해시

중심부나 인근 鎮소재 개발구에 비해서도 지대가 저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부도 적극적인 유치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지역별 구성은 상해인이 50%, 강소, 절강 등 외지인이 50%이다. 대부분의 관리인은 현지 채용인력이며, 공인의 임금은 700~900元, 관리직 1,300~1,500元, 전문관리직 2,000~3,000元 수준이다.

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가격은 중국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경쟁력은 갖고 있으며, 브랜드의 이미지도 중고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인데 아무리 한국기업이 임금비용은 낮추더라도 중국기업보다 낮추기는 사실상 힘들며,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품질면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매시장이 소득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판매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대도시의 대형백화점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다국적기업의 중국산 제품들이 휩쓸고 있어 이랜드의 브랜드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당초 98년부터는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국의 IMF 영향으로 어렵게 되었다. 수출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주문이 취소되는 등 수출부문의 부진이 심각한 상태이며 중국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라 내수판매도 저조한 편이다. 기존의 생산라인 중 1/4만이 현재 가동중인바, 생산규모도 종래의 월 7~8만 피스에서 1.6~2만 피스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의 수도 450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성이 상실되었으며, 채산성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이 어려운 이유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선을 미국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의 섬유쿼터 제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내 섬유쿼터가 중국기업 위주로 분배될 뿐만 아니라 진단위의 기업까지 분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수출 및 내수 침체가 현 법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 철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현지 공장의 생산비용은 외주업체(중국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현지 공장의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법인의 설립의도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기 때문에 내수 판매라는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현 법인을 철수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만일 국내외사정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된다면 극단적으로 실질적인 제품생산은 중국기업을 통한 외주방식을 택하고, 본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정부와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다고 판단된다. 진정부의 간섭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이 진정부의 각종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악화로 대량 해고를 실시하였을 시에도 공안국과 진정부가 노동자 소요를 사전에 방지해 주었다. 그러나 향진기업에 대한 진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이 외자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2. 榮興(太倉)鋼絲繩有限公司

榮興(太倉)鋼絲繩有限公司는 한국의 영흥철강과 홍콩의 2개사가 1996년 합작 설립한 기업으로 江蘇省 太倉市 瀏家港鎮 港口開發區에 소재해 있다. 본 법인의 총 투자 금액은 500만 달러이고, 지분은 한국측이 60%, 홍콩측이 40%를 갖고 있다. 공장규모는 3만 km^2 (이중 건물은 1만 km^2)이며 1997년 생산액(=수출액)은 400만 달러, 전체 종업원수는 140명이다.

투자지역의 설정은 지대와 인력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였는데, 생산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미숙련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였다.

한국에서 동종 업종(강철 로프)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투자를 시도하였다. 제조원가 중 인건비의 비중이 15% 이하를 유지하여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 측면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있으나, 저급품으로 인식되는 단점도 있다.

현지 법인의 설립의도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한편, 중국 내수시장에도 진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수시장은 제품(강철 로프)을 수요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 판매에 부담이 되고 있다.

IMF로 한국 본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현지법인의 경영도 매우 어려워졌다. 이 분야의 사업이 장치산업인 관계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데다 진출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본사의 부도 이후 자금 부족 및 본사로부터의 발주 중단으로 현재 공장은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공장의 가동을 하락에 따른 잔업 감소로 종업원의 임금도 지난해 700元 수준에서 300元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현지 법인의 존속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 본사가 정리되는 대로 현지 법인도 여하의 방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 崑山東國服裝有限公司

崑山東國服裝有限公司는 江蘇省 崑山市 花橋鎮 曹安開發區 소재기업으로 자본금 150만 달러, 대지 7,440m²(이 중 건물 면적 4,300m²), 종업원 430명이다. 1994년 4월 설립하였으며, 실제 가동은 동년 10월부터 이루어졌다. 매출액은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550만 달러, 600만 달러였으나, 97년에는 일본경제의 위축으로 42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의류품으로 생산품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수준은 만족할 만한 편이며 의사소통 차원에서 사무직의 경우 조선족을 적절히 채용하고 있다(현재 조선족은 관리직 6명, 생산직 1명). 한국의 파견직원은 사무직 1명, 생산직 3명이다.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는 임금 750元과 각종 제비용을 포함하여 830元 수준이다.

중국 현지 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한국 자본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본 법인은 5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현지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이자율이 7.7% 수준으로 한국 은행에 비해 저렴하다. 주로 무역 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데, 운전자금의 용자에 비해 시설투자 자금의 용자는 쉽지 않다. 금년도 신규투자 규모는 7만 달러 수준이며, 주로 품목 다양화에 투자하고 있다.

崑山東國服裝有限公司는 생산품의 대부분을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섬유쿼터를 받아야 하지만 오는 2003년부터 국제적으로 섬유쿼터가 폐지될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인바, 미국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崑山東國服裝有限公司가 위치한 崑山市 花橋鎮 曹安開發區는 여타 진 지역에 비해 지대가 높으나 섬유 관련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상해와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이 적다는 잇점이 있다. 전체 원부자재 중 20%를 현지 조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산 원부자재가 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진정부와는 특별한 교류가 없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진정부 산하의 노동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2차적으로 시의 노동관리사무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정부측의 역할은 미미하다. 진정부가 여러 가지 준조세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중국 내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큰 불만은 없다. 최근에도 수해의연금을 모금한 경우가 있

는데, 이 때에는 공회(노동조합)측과 성금 액수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여 공회측이 근로자로부터 2,000여 元을 각출하고, 기업 측이 3,000여 元을 부담하여 총 6,000元을 모금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모금은 기업측의 준조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공회)와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중국의 공회는 한국의 노조와 달리 유연하며 기업측과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회측이 종업원 해고문제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

본 법인이 위치해 있는 花橋鎮 曹安開發區는 진정부 산하의 개발구로 진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외국기업으로는 94년도 본 법인이 처음으로 개발구 내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대만기업 등이 진입하였다. 개발구내 인프라 시설의 경우 도로와 수리시설은 양호하지만 하절기 전력 공급은 부족한 편인바, 현재에도 일주일에 하루씩 강제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 경우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야간작업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개발구 내의 중국기업이나 외자기업과의 별도의 교류채널은 없다. 개발구내 기업과의 교류는 기업들이 일치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진정부에 일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간 교류가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본 개발구 내에는 東國服裝과 동일한 업종(의류)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없어 가치있는 정보교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지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용이하지 않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여 자본주의적인 사고나 계획성·창의성이 부족하다. 직장내 직업훈련도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높은 이직률로 체계적이지 못하다. 중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도 직업훈련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기업의 경우

기술습득 이 외에 해당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대이익이 없다. 따라서 중국 현지직원이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원부자재의 현지화도 해당 기업의 기술, 관리능력 부족으로 단순가공품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류분야의 경우 내수시장은 저가-저질 제품과 고급브랜드 제품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데, 고급 제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브랜드이미지가 낮고, 저가-저질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다. 또한 판매망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내수판매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금융위기의 타격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품 가격 하락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본 법인의 생산품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기침체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있어서 수출증치세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다. 증치세는 1년에 한 번 정산되는데, 중국정부가 증치세 환급분을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증치세 납입분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에 발생한 환급분을 미리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증치세를 납부할 때에 정산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면에서 불만이 있다. 증치세 환급은 94년 이후 설립한 외자기업에만 적용되며, 품목별로 9%와 11%로 환급율에서 차이가 있는데 본 사의 생산 제품은 11%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4. 蘇州泰淵完具有限公司

蘇州泰淵完具有限公司는 1993년 9월,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江蘇省 吳

縣市 角直鎮에 독자기업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진정부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1996년 600만 달러를 주고 건물을 매입하였다. 본 법인의 주요 생산품은 봉제완구이며, 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은 봉제완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수출량이 많지 않다. 생산품 중 80%는 디즈니社로부터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연간 수출액은 1994년 첫째 350만 달러, 1995년 800만 달러, 1996년 1,650만 달러, 1997년 2,600만 달러이다. 금년 7월 말 현재 1,600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200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동남아국가들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정국 불안으로 평가절하의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경쟁력면에서 큰 영향은 없다. 만일 인민폐가 평가절하된다면 수출증진 효과가 클 것이나,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종업원은 1,300명이며, 임금수준은 인근 곤산지역보다 낮은 400元 수준으로 제경비를 더한 인건비수준도 1,000元 내외이다. 조선족은 40~50명인데 조선족과 한족의 갈등은 거의 없으며 조선족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면에서 사무실직원에게 대해서는 조금 우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족의 불만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생산성이나 근무 태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종업원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동의하고 있다.

투자지역을 상해인근의 吳縣市 角直鎮으로 설정한 이유는 동종 업종의 경쟁기업들이 천진과 심천지역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동종 업종이 밀집되어 있으면 우리 기업 간에 과잉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외에 본사 사장이 중국내 인맥을 통해 角直鎮 당서기를 소개받은 것도 이 지역 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 당서기의 영향력으로 인해 초기부터 진정부가 본 법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角直개발구에 본 법인이 처음 입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의 경영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으면서 한국 업체 8개사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상당수 입주하였다. 당서기가 직접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바 준조세 측면은 물론 상급기관의 간섭도 막아주고 있으며,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곤산·소주지역 35개 한국업체를 평가해본다면, 부도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이 10%,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10%, 보통인 기업이 30~40%, 양호한 기업이 20% 정도인데 태연완구는 경영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자재의 70%는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부자재는 거의 전부 한국산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산 원자재가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산 원자재에 비해 뒤지지만 가격이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재의 경우 품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한국산 부자재가 경쟁력이 높다. 중국산 원자재는 1995년부터 구매하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품질이 떨어지고, 납기를 지키지 않는 등 신뢰성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으나, 중국산 제품도 꾸준히 질적 향상이 되고 있어 최근에는 중국산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다.

외주의 30~40% 정도는 인근지역의 중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외주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 종업원의 이직률은 월 5% 이하인데 인근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종업원의 복지문제도 관심을 기울일 부분인데 숙사를 통해 전체 종업원의 80% 정도가 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식비보조, 의료실 및 전임 의사까지 고용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吳縣시의 건설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중국은행의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은 한국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좌우한다.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지는데 태연완구는 신

용거래로 50만 달러 대출이 상시 가능하다.

태연완구가 중국에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던 이유는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하고, 근로자는 자본주의적인 기업문화에 빠르게 적응하였기 때문이다. 기업 측은 중국인의 장점을 존중하는 한편, 근로자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즉 다양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높였으며, 종업원의 요구조건은 가급적 수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기업이 현지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조치이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주는 중국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으로 인센티브보다는 고정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전환된다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종업원들이 여타 외자기업과는 달리 애사심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체 종업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리 기업의 근무여건은 한국내 기업에 못지 않다.

부록 2

鄉鎮企業法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제76호

1996년 10월 29일 中華人民共和國8期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22次會議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鄉鎮企業法>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中華人民共和國主席 江澤民

1996년 10월 29일

제1조 향진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 유도하며 향진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향진기업의 행위를 규범화시키며 농촌 경제를 번영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향진기업의 정의는 농촌 집체경제조직 혹은 농민의 투자를 위주로 하여 鄉(향)과 鎮(진)(관할범위 내의 村을 포함)에서 경영하는 농업 지원 의무를 갖는 각종 유형의 기업을 말한다.

위의 투자 위주라 함은 농촌 집체경제조직 또는 농민의 투자가 50%를 초과하거나 혹은 50% 미만이라도 지주적 역할 혹은 실제로 지배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향진기업이 기업법인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업법인

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향진기업은 농촌경제의 중요한 지주이며 국민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향진기업의 주요 과제는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유효공급을 증가시키고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며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을 지원하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4조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 집체경제 주도를 견지하고 각종 경제성분의 공동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정부는 향진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지도하고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정부는 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향진기업 발전을 고무하고 중점 지원하며 경제가 발달된 지역의 향진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을 고무하여 각종 방식으로 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향진기업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과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의 향진기업에 대한 계획·협조·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며, 현 이상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과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 내의 향진기업에 대한 계획·협조·감독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된 향진기업은 해당 지역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에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향진기업은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분립 합병 및 영업을 정지하거나 혹은 폐업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혹은 등기 취소를 한 후 반드시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 향진기업이 도시에 설립한 지사 혹은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농업

지원 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도시에 설립한 기업은 향진기업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투자로 설립된 향진기업의 재산권은 그 기업을 설립한 전체 농민집체의 소유에 속한다.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기타 기업과 조직 혹은 개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향진기업의 재산권은 출자금 비율에 따라 투자자의 소유에 속한다. 농민의 합영 혹은 단독 투자로 설립된 향진기업의 재산권은 투자자에게 속한다.

제11조 향진기업은 법에 의해 독립채산과 자체경영 및 손익 자기부담의 경영을 시행한다. 기업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향진기업은 법적으로 법인 재산권을 향유한다.

제12조 국가는 향진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향진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은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하한 조직 혹은 개인을 불문하고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향진기업의 생산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고 기업의 책임자를 바꾸지 못하며, 향진기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 향진기업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업 형식에 따라 설립하고, 투자자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기업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관리제도를 건립하며 법적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14조 향진기업은 법적으로 민주관리를 시행하며 투자자가 기업경영 관리 제도와 기업책임자를 확정하고 중요한 경영정책을 결정하며 직공의 급여와 생활복지,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 등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 기업의工會 혹은 직공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공들에게 공표하고 직공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부는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의 향진기업을 고무하여 직공의 사회보험 제도를 건립, 건전화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향진기업의 경영 정지 혹은 폐업시 사회보험 제도가 건립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공을 배치하며, 법적으로 노동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원래 농촌 집체경제조직 소속이던 직공은 다시 농촌 집체경제조직에 돌아와 생산에 종사하거나 혹은 자체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향진기업은 稅後利潤 가운데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인출하여 농업 지원과 농촌의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며, 그 비율과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법률과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과 조직 혹은 개인을 불문하고 임의의 방식으로 향진기업의 비용을 수취하거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정부는 향진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향진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한다. 감세의 유형과 기한 및 비율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9조 국가는 다음의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형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상이한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 ① 설립초기의 경영난에 직면한 집체소유제 향진기업,
- ② 소수민족 지역과 변방지역 및 빈곤지역에 설립된 향진기업,
- ③ 식량, 사료, 육류의 가공, 비축, 운송, 판매, 경영에 종사하는 향진기업,
- ④ 국가산업정책에 규정된 특수 지원 대상.

세제상의 구체적인 우대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0조 정부는 신용대출수단을 운용하여 향진기업의 발전을 고무하고

지원한다. 국가 관련 금융기관은 상기 조항에 규정된 조건과 대출 조건에 부합되는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생산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발전 전망이 있는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상의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우선대출과 우대대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1조 縣級 이상의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향진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자금으로 구성된다.

- ① 향진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배정하는 운영자금,
- ② 향진기업이 매년 상납하는 신규 지방세 가운데서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하는 자금,
- ③ 기금의 운영 수익,
- ④ 농촌 집체경제조직과 향진기업 및 농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

제22조 향진기업 발전 기금은 전적으로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며 그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소수민족지구와 변경지구 및 빈곤지구의 향진기업 발전을 지원,
- ② 경제가 낙후한 지구 및 소수민족지구와 경제가 발달된 지구의 향진기업 간에 진행되는 경제기술 합작과 합자항목 운영을 지원,
- ③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향진기업의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조정을 지원,
- ④ 향진기업의 기술개조와 유명, 특수, 우수 신제품 및 전통적인 수공예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 ⑤ 농업용 생산재 생산이나 농업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향진기업의 발전,

⑥ 식량과 사료 및 육류의 가공, 저장, 운송, 판매에 종사하는
향진기업의 발전,

⑦ 향진기업 직공의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지원,

⑧ 기타 지원이 필요한 항목.

향진기업 발전기금의 설립과 사용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
한다.

제23조 국가는 향진기업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과학기술 인원과
경영관리인원 및 대학과 중등전문학교 졸업생들이 향진기업에
서 근무하는 것을 격려하며 각종 방식으로 향진기업을 위해 복
무하도록 한다. 향진기업은 다경로 다형식을 통해 기술인원과
경영관리 인원 및 생산인원을 훈련시키고 우대조치를 취하여
인재를 유치한다.

제24조 국가는 우대 조치를 취하여 향진기업이 과학연구기구, 대학, 국
유기업, 기타 기업과 조직 간에 여러 가지 형식의 경제기술합작
을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제25조 국가는 향진기업이 대외경제기술합작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격
려하고 수출상품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외화 가득을 증가시킨다.
조건이 갖추어진 향진기업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친 후 대외무
역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6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통일적인 계획과 합리적 배치의 원칙에
따라 향진기업의 발전과 소도시 건설을 결합하여 향진기업의 적
절한 집중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기초시설과 서비스 시설 건설
을 점차 강화하여 소도시 건설을 가속화한다.

제27조 향진기업은 시장의 수요와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업구조와
제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개조를 강화하며 선진적
인 기술과 생산방법 및 설비를 부단히 채용하여 기업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28조 향진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건설용지는 토지이용의 총체적 기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토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절약하고, 황무지와 저질의 토지를 이용할 수만 있으면 경지와 좋은 토지를 점용 하지 못한다. 향진기업 운영상 농촌 집체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의 비준 수속과 토지 등기 수속을 취해야 한다.

향진기업이 농촌 집체소유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속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운영 중지로 1년 이상 방치하였을 경우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그 사용 방안을 다시 계획해야 한다.

제29조 향진기업은 법에 따라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 향진기업이 광산자원 채굴에 종사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계부문의 비준을 거쳐 채굴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을 받은 후 정규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파괴를 엄금해야 한다.

제30조 향진기업은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제도를 세우고 재무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배치하고 재무활동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31조 향진기업은 국가통계 제도에 따라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통계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향진기업이 기입 보고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향진기업은 법에 따라 세무 등기를 하고 제때에 납세 신고를 하며 정액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향진기업은 제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인체의 건강 보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한 국가표준과 업종별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효력을 잃었거나 변질된 제품 및 국가

가 법령으로 공포한 도태된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

위조제품을 만들거나 저급품으로 고급품을 충당해서도 안 된다.

제34조 향진기업은 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기업의 신용을 중시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하는 상표를 제조해야지 제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 명칭, 공장 소재지, 인증 표지, 유명 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향진기업은 환경보호 관련 법률과 법규를 지키고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조치를 취해 오염이 적으며 자원소모가 적은 기업을 적극 발전시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확실히 예방 퇴치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향진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를 제정 및 실시하여 향진기업의 오염 예방 퇴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6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향진기업 건설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향진기업 건설 항목 중 오염의 예방 및 퇴치 시설은 주체 공정과 동시에 운영되어야 한다. 오염의 예방, 퇴치 시설은 주요 환경보호 행정 관리부문의 검수를 통해 합격된 후에야만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향진기업은 국가가 법령으로 금지하는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키는 생산기술과 설비를 채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법령으로 금지하는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하지 못한다. 오염물 배출이 국가 혹은 지방의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다스리고 기한이 지나도 퇴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다른 생산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제37조 향진기업은 노동보호와 노동안전에 관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지키고, 안전제일·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노동

위생 기술조치와 관리조치를 취하여 생산중의 사상사고와 직업 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 폐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해결하거나 생산을 중지하고 정돈해야 한다. 관리자의 불법 지휘와 직공들에 대한 모험적인 작업 강요를 엄금한다. 생산중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구급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며 관계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縣級 이상의 인민정부가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에 명하여 시정토록 한다.

- ① 향진기업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② 향진기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향진기업 책임자를 불법적으로 교체하는 행위,
- ④ 향진기업의 자주적 경영권을 침범하는 행위.

위의 행위로 인해 향진기업에 조성한 경제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39조 향진기업은 기업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수료 할당 및 벌금을 부과하는 단위와 개인을 회계 심사, 감찰, 재정, 물가,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에 기소, 적발할 권한이 있다. 관계 부문과 상급 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중지토록 책임자에게 명령하는 동시에 기한 내에 관련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문이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제40조 향진기업이 국가의 품질기준, 환경보호, 토지관리, 자연자원 개발, 노동안전, 세수, 기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시정전 상황의 경중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일부 혹은 전부의 우대조치를 중지시

켜야 한다.

제41조 향진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지원 의무를 분담하지 않았을 경우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이 명령하여 시정토록 하고 그 시정 전까지 이 법 규정의 일부 혹은 전부의 우대조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2조 이 법 제38조로부터 제41조에 규정된 처벌과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가 행정 소원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⁶⁹⁾

國家環境保護局, 農業部, 國家計劃委, 國家經濟貿易委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합동으로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공작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縣長과 鄉(鎮)長은 해당지역의 환경을 책임져야 하며, 관할지역의 환경수준을 縣과 鄉(鎮) 주요 책임자들의 공작을 심사하는 중요 기준으로 해야 한다. 縣級별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통제하고, 향진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해당 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의 통제목표에 편입시켜야 한다. 2000년에 가서는 모든 향진기업들이 오염물질의 배출지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향진기업의 생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즉 연간 생산량이 5,000톤 이하인 제지공장, 연간 우피 생산량이 3만 장 이하인 피혁공장, 연간 생산량이 500톤 이하인 염료공장, 그리고 坑式 및 萍鄉爐로 코크스를 생산하고, 天地罐과 무개식으로 黃酸을 생산하며, 말구유爐로 연·아연을 생산하고, 혼홍법과 활강사면爐로 選金하며, 말굽가마로 벽돌을 굽고, 토굴에서 시멘트를 굽는 등 기업에 대해 縣級이상 정부가 취체령을 내린다. 재래식 방법으로 비소, 수은, 석유를 정제하고 표백·염색하며 전기도금을 하거나 농약과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방

69) 『經濟日報』, 1997년 4월 3일.

사성 광산자원을 채굴하거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縣級 이상 정부가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규정에 따라 취체하거나 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縣과 鄉鎮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기업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적인 수입과 가공 및 외국 고체폐기물의 이용을 엄금한다.

3. 국가 법률과 법규 및 상술한 규정의 取締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프로젝트의 향진기업 신규 건설을 금지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淮河, 海河, 遼河, 太湖 등 수질오염의 중점 통제지역은 화학펄프.종이 제조, 소형 제혁, 날염, 양조, 전기도금 등 프로젝트와 오염이 엄중한 화공프로젝트의 향진기업 신규 건설을 금지한다.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상술한 생산프로젝트의 신규 건설과 확충 건설 및 개조 건설은 반드시 해당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계획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은 현지 오염물질 배출총량의 통제지표를 초과하지 못한다. 環境影響報告書(表)는 향진기업 행정주무부서의 예심을 거쳐 省級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시설과 주요 공정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투입 등 '세 가지 동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환경보호시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산투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기업이 건설된 후에는 반드시 오염물질 배출지표에 안정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수질오염의 중점 통제지역 밖에서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상술한 생산프로젝트를 새로 건설하거나 재건 또는 확충 건설할 경우에는 環境影響報告書(表)를 심사비준 기관을 거쳐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공에 들어가지 못한다.

4.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는 관련부문과 연합하여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과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향진기업의 오염규제 중점 업종과 지역을 공포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해당 중점업종 향진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과 관리 및 해당 중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처리를 강화하

고, 환경보호 투입을 증가시키며,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는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기한부 治理를 명령해야 한다. 경제 또는 기술 면에서 治理條件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 내에 생산을 중지 또는 전환하도록 명령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향진기업 발전을 소도시 건설과 상호 결합시키고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와 관련부문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향진기업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향진기업 환경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련부문은 향진기업의 오염방지 시범공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하여 향진기업의 오염방지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향진기업은 국가의 환경보호관련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각급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각급 관리인원과 인민군중의 환경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부록 4

과잉노동력의 추계

<표 1> 각 省別 과잉노동력의 추계(1990년)

(단위: 만무(畝), 만 명)

	총경지 면적	농촌 노동력	농업 노동력	가능 경작면적	적정농업 노동력	농촌과잉 노동력	농업과잉 노동력
북 경	619.1	184.3	82.5	17.2	36.1	148.2	46.4
천 진	647.2	170.8	89.5	16.5	39.1	131.7	50.4
하 북	9,834.1	2,360.5	1,780.4	12.6	778.5	1,582.0	1,001.9
산 서	5,538.8	887.8	624.9	20.3	273.2	614.6	351.7
내몽고	7,448.6	538.0	477.5	35.7	208.8	329.2	268.7
요 녕	5,200.8	831.0	605.5	19.6	264.8	566.2	340.7
길 립	5,908.9	614.4	541.2	25.0	236.6	377.8	304.6
흑룡강	13,246.6	538.2	463.9	65.3	202.8	335.4	261.1
상 해	484.8	250.0	75.0	14.8	32.8	217.2	42.2
강 소	6,836.8	2,786.9	1,714.5	9.1	749.7	2,037.2	964.8
절 강	2,585.1	2,034.8	1,336.5	4.4	584.4	1,450.4	752.1
안 휘	6,548.3	2,301.5	1,923.2	7.8	840.9	1,460.6	1,082.3
북 건	1,854.7	1,012.2	771.7	5.5	337.4	674.8	434.3
강 서	3,524.3	1,394.2	1,152.7	7.0	504.0	890.2	648.7
산 동	10,278.7	3,348.3	2,507.9	9.4	1,096.6	2,251.7	1,411.3
하 남	10,399.8	3,423.7	2,819.8	8.4	1,233.0	2,190.7	1,586.8
호 북	5,215.2	1,791.3	1,454.0	8.2	635.8	1,155.5	818.2
호 남	4,968.3	2,598.3	2,257.5	5.0	987.1	1,611.2	1,270.4
광 동	4,439.5	2,553.1	1,762.9	5.8	770.8	1,782.3	992.1
광 서	3,893.9	1,767.8	1,589.1	5.6	694.8	1,073.0	894.3
사 천	9,448.4	4,890.8	4,234.8	5.1	1,851.7	3,039.1	2,383.1
귀 주	2,781.3	1,402.3	1,285.5	4.9	562.1	840.2	723.4
운 남	4,268.1	1,646.8	1,502.5	6.5	657.0	989.8	845.5
섬 서	333.4	90.7	85.9	8.9	37.6	53.1	48.3
감 속	5,299.5	1,202.9	1,001.0	12.1	437.7	765.2	563.3
청 해	5,214.6	821.1	683.3	17.5	298.8	522.3	384.5
녕 하	866.4	135.9	119.7	16.6	52.3	83.6	69.9
신 강	4,630.2	291.3	269.2	39.3	117.7	173.6	151.5
계	143,509.2	42,009.6	33,336.4	9.8	14,576.5	27,433.1 (65.3)	18,759.9 (56.3)

주: ()은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1년.

<표 2> 과잉노동력의 추계(1990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총경지면적	144,344.8	143,833.0	143,582.7	143,484.0	143,509.2
농촌노동력	37,989.8	39,000.4	40,066.7	40,938.8	42,009.6
농업노동력	30,467.9	30,870.0	31,455.7	32,440.5	33,336.4
적정노동력	14,536.2	14,255.0	14,415.9	14,348.4	14,350.9
농촌과잉 노동력	23,453.6 (61.7)	24,745.4 (63.5)	25,650.8 (64.0)	2,650.4 (65.0)	27,658.7 (65.8)
농업과잉 노동력	15,931.7 (52.3)	16,615.0 (53.8)	17,039.8 (54.2)	18,093.1 (55.8)	18,985.5 (57.0)

주: ()은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1년

Executive Summar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Township-Village Enterprises

Chai Wook Chun · Eui-Hyun Choi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 and the Third Plenu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11th Central Committee of 1978, the Chinese economy showed some signs of growth at least on the surfac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between 1957 and 1978 was claim to be 4.4% and the growth rate of agricultural output was at 4%. However, these figures are dubious as they come from central planning system furthermore, the government transferred the surplus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the heavy industry sector. This is well supported by the statistics - the annual consumption increases of the agricultural sector was only 1.4%.

It was the reform of 1978 that brought major change to the Chinese economy. As the government sought to modernize its economy, the socialist central planning system was overhauled to distribute power to local authorities and other new agricultural policies were introduced. As a consequence of the successful reform of agricultural sector, the income increases have allowed the farmers to inves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with the labor surplus that came from improved efficiency. These surpluses naturally led to creation of the Township-Village Enterprises (TVEs).

The fast-growing TVEs acted as the engine of prosperity of peasant households of China during this period. A special focus on TVEs is warranted for a variety of reasons. First, the output of rural industries achieved phenomenal growth rates in the 1980s, and by the end of the decade this sector assumed a significant role not only in the rural economy, but also in the economy of the country as a whole.

Employing about 12% of the rural labor force, these industries were accounting for over a third of the total rural output. TVEs thu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significant rural-urban migration and in view of the limitations on the growth of agriculture, the growth of income from TVEs and other enterprises become an engine of growth in rural income.

Second, these indust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e growth of agriculture (e.g. by providing funds for social investment in irrigation, facilitating farm mechanization and the use of fertilizers, etc.) and thus made valuable indirect contributions to the income of peasants.

This study focus on the performance of TVEs in the changing environment where it can be characterized by foreign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The TVEs in coastal region and textile industry have played a major role in exports, while FDI has helped the TVEs to improve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technology. However, since the most part of FDI comes only from Hong Kong and Taiwan its role as an engine of development is limited.

The 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of TVEs is only at the beginning stages as foreign subsidiaries of TVEs are ODI by TVEs functioning as so rather than as manufacturing facilities. Despite the current status, ODI by TVEs has great potential for dynamic growth because of globally distributed overseas Chinese connection.

As the globalization of TVEs are at the beginning stage, interaction with Korean firms is not yet very active. Most of the Korean firms investing in China are seeking low wage and low rent and prefer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through joint ventures. Although the ties between TVEs and Korean firms are not get active,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VEs will be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and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for Korean firms. First, TVEs should be considered as a group of fast growing enterprises rather than small or medium firms of rural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VEs to facilitate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Third, while cooperating with TV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local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cooperating TVEs are located.

發刊資料 目錄

■ 政策研究

-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90. 3)/金學洙
-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的 變化 (90. 3)/閔充基
-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90. 5)/金宗萬
- 90-04 우루과이 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 5)/孫讚鉉
-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 戰略(90. 6)/金泰俊
-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 産業政策和 投資 環境變化(90. 9)/柳在元
-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90. 10)/金學洙
- 90-08 美國通商政策的 中長期 方向(90. 10)/金南斗
- 90-09 多者間 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 業의 國際化(90. 10)/張義泰
-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 12)/徐相祿
-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91. 1)/ 姜興求
-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91. 3)/金宗萬
- 91-03 EC 貿易構造的 變化(91. 4)/金廷洙
-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91. 3)/ 李長榮
-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 的 對應(91. 4)/吳勇錫
-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的 改革 (91. 4)/朴濟勳
-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91. 4)/金時中
- 91-08 우리나라 서비스 交易的 構造와 推移(91. 4)/李相學
- 91-09 韓國 臺灣 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91. 5)/曹琮和
-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 變化和 對應方案 (91. 5)/閔充基
-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91. 7)/金學洙
-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制度的 改善과 活 用方案(91. 8)/蔡旭
-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和 生 産性的 國際比較(91. 8)/俞鎮守
- 91-14 舊東獨의 價格關係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91. 8)/裴眞永
-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 協商과 證券 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91. 8)/金泰俊
-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 9)/洪裕洙
-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91. 9)/金南斗
-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和 産業構造 調整(91. 9)/柳在元
-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91. 10)/金宗萬
- 91-20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91. 12)/ 共同
-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 力 比較(92. 1)/鄭永祿
- 92-02 貿易關係 政策 및 制度的 現況과 改善 方向(92. 2)/共同
- 92-03 統獨1年의 經濟的 評價와 展望(92. 3)/裴 眞永
-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 易障壁(92. 3)/俞鎮守
- 92-05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② 보 험産業의 國際化戰略(92. 3)/蔡旭
-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 (92. 3)/韓弘烈
-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
品流通과 流通障壁(92. 3)/趙炳澤·李永
俊
- 92-08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2] 會計
서비스産業 國際化 進出方案(92. 4)/金宗萬
- 92-09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3] 우
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92. 6)/
張義泰
- 92-10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
資 與件(92. 6)/朴濟勳
-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92. 6)/鄭
永祿
-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92. 6)/
金益洙
-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
査制度(92. 7)/成克濟
-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
障壁(92. 7)/閔充基
- 92-15 汎유럽 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92.
7)/金博洙
-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
由化 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92. 7)/
金泰俊
-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 서비
스 關係 障壁(92. 7)/李長榮
- 92-18 유럽 金融統合과 EC 金融市場 進出方
案(92. 7)/李在雄
-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92. 7)/洪
裕洙
- 92-20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4] 流通
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92. 7)/申世敦
- 92-21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5] 廣告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92. 7)/李相學
-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92. 8)/崔仁範
-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
易障壁(92. 8)/金南斗
- 92-24 輸入先多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92. 9)/
共同
-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
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92. 9)/
孫炳海
- 92-26 UR 총점검 : 分野別 評價와 우리의 對應
(92. 10)/朴泰鎬 外
-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
出에 미치는 영향(92. 10)/金宗萬
-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
究(92. 10)/共同
-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
望(92. 10)/金昌男
-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92. 12)/김진천
-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93. 1)/蔡旭
-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 1)/韓弘烈
-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과 展望(93.
2)/金時中
- 93-04 日本의 技術貿易(93. 2)/兪鎮守
-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
望(93. 3)/金學洙
- 93-06 불럭화時代의 亞·太 經濟協力: 韓國의
役割과 選擇(93. 3)/共同
-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93. 3)/吳勇錫
-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
究(93. 3)/朴濟勳
-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93. 3)/
康仁洙
-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
入에 미치는 影響(93. 3)/金宗萬
-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
分業生産의 役割(93. 4)/任千錫
-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 4)/曹正錄
-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93.
4)/李昌在
-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
策에 대한 政策示唆點(93. 5)/金泰俊

-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93. 5)/
金益洙
-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 5)/鄭永祿
-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
化(93. 5)/閔克基
- 93-18 韓美日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
치는 影響(93. 8)/成克劑
-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
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93. 8)/金尙謙
- 93-20 EC 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93.
8)/金博洙
-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 9)/共同
-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的 方向과 課題(93.
11)/王允鍾
- 93-23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과 韓國의 對
應(93. 11)/洪裕洙
-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
協力方案(93. 11)/李昌在
- 93-25 UR 총점검: 最終協定の 분야별 評價(93.
12)/共同
- 93-26 서비스 産業의 國際化戰略 研究 [6] 엔
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93. 12)/孫讀鉉
-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
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93. 12)/朴成勳
-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 12)/金時中
-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93.
12)/朴濟勳
-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 動向과 戰略
(93. 12)/金益洙
-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導入現況과
政策方向(93. 12)/任千錫
-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現況 및
展望(93. 12)/李鎬生
- 93-33 亞·太 經濟協力的 新 方向(93. 12)/
李載星
-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的 效果分析
(93. 12)/表鶴吉·權皓學
- 93-35 21世紀를 향한 韓 日間 技術分業과 技
術協力的 基本方向(93. 12)/朴宇熙 外
-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93.
12)/吳勇錫
-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93. 12)/孫正
植·朴大槿
- 93-38 東歐改革的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 12)/鄭甲詠
-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93. 12)/金
仁竣
- 93-40 亞·太經濟協力的 深化方案(93. 12)/共同
-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93. 12)/尹健秀
-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93.
12)/權寧燦
- 93-43 美國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93.
12)/崔仁範
-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94. 1)/
洪裕洙
-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
點(94. 1)/韓弘烈
-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
에 미친 影響(94. 2)/蔡眞永
-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
略(94. 2)/韓宅煥
- 94-05 WTO 출범과 新交易秩序— 분야별 內容
과 示唆點(94. 7)/共同
-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94.
10)/洪裕洙
- 94-07 外國人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94. 12)/王允鍾
-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95.
1)/共同
- 94-09 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
略(94.12)/李昌在
-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94.
12)/金時中
-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94. 12)/魯在峯
-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94.
12)/洪裕洙

-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 12)/丁相朝
- 94-14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94. 12)/朱尙榮
-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94.1 2)/金龍龜·朴成勳
-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94.12)/李正淵
-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主要業種의 成果 分析과 向後展望(95. 5)/申晚秀·李掌魯
-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95.5)/ 勸才重
-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의 特性과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產品 市場을 中心으 로(95. 5)/金益洙
- 95-04 亞·太 經濟協力の 新構想(95. 6)/李在星
-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 10)/韓宅煥
-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現況 및 政 策動向(95. 10)/李昌在
-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95. 12)/金寬濤
-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 投資制度(95. 12)/王允鍾
-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95. 12)/李鎬生
-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影響(95. 12)/金益洙
-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 의 效果 分析(95. 12)/金準東·康仁원
-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95. 12)/洪 裕洙
-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 과 그 示唆點(96. 4)/元容杰
- 96-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 政策(96. 5)/禹榮洙
- 96-03 金融 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 와 政策示唆點(96. 8)/朱尙榮
- 96-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96. 8)/王允鍾
- 96-05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96. 8)/鄭仁教·表鶴吉
- 96-06 保護貿易의 費用分析(96.8)/金南斗
- 96-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活性化 方案과 危險 管理(96. 9)/金寅培
- 96-08 WTO 體制의 定着과 新通商議題(96. 10)/ 共同
- 96-09 APEC 貿易自由化의 經濟的 效果(96. 11)/ 鄭仁教
- 96-10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96. 11)/李 昌在
- 96-11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研究(96. 12)/王 允鍾
- 96-12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96. 12)/ 安炯徒
- 96-13 新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產化 政策(96. 12)/金泰亨
- 96-14 CGE 模型에 의한 韓國의 輸出入構造 및 巨視經濟 中期展望(96. 12)/ 文錫雄·金建弘
- 96-15 韓國의 小規模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 的 妥當性에 關한 研究(96. 12)/金泰 亨·鄭仁教
- 96-16 非市長經濟國에 대한 3개국(美國, 캐나다, 韓國)의 反덤핑 措置 研究—中國의 사례분석(96. 12)/金完淳·嚴寅鎬
- 96-17 一般特惠 關稅制度(GSP)의 導入可能性 에 關한 研究(96. 12)/金南斗
- 96-18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와 示唆點(96. 12)/曹正錄
- 96-19 中國 政治·經濟에 關한 國內 研究의 現 況과 課題(96. 12)/共同
- 96-20 北韓 價格政策의 現況과 改革 方向(96. 12)/趙明濟
-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 政策(97. 9)/王允鍾
-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97. 12)/王允鍾 編
-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97. 12)/金準東
-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97. 12)/崔秀雄
-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

- 況과 示唆點(97. 12)/金鍾範
-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
課題(97. 12)/李鍾華 · 李晟鳳
-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97.
12)/王允鍾 · 羅秀燁
-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97. 12)/
李昌在外
-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97. 12)/金南斗 外
-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97. 12)/趙明哲
-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97. 12)/鄭余泉
-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
應課題(97. 12)/金元鎬 外
-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97. 12)/
金寬濤 外
-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
善方案(97. 12)/趙顯垓
- 98-01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I : 종합심층보고
(98. 7)/張亨壽 · 王允鍾
- 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황과 과제(98. 6)/李章
揆 외
-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
의 역할(98. 9)/王允鍾 · 金琮根
- 98-04 APEC 연구시리즈 Ⅰ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지역적응에 관한 탐색연구
(98. 10)/權泰亨 外
- 98-05 APEC 연구시리즈 Ⅱ 1997년 APEC 개
별실행계획(IAPs)의 평가(98. 10)/成克濟
-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종합심층연구(98.
12)/王允鍾 編
- 98-07 APEC 연구시리즈 Ⅲ 부문별 조가무역자
유화의 경제적 효과(98. 12)/柳在元 · 李
弘求
- 98-08 러시아 金融危機의 原因과 파급효과(98.
12)/李昌在外
- 98-09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Ⅰ 外國人投資誘
致政策 :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 투
자인센티브(98. 12)/李晟鳳 · 李炯根
- 98-10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Ⅱ 外國人投資誘
致政策 :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投資
自由地域(98. 12)/李晟鳳 · 金琮根 · 李炯根
-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
용 방안을 중심으로(98. 12)/張亨壽 · 李昌在
· 朴映坤
-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98.
12)/崔秀雄
-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98. 12)/徐錫興
- 98-14 APEC 연구시리즈 Ⅳ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 Case of
APII(98. 10)/ Eun-Mee Kim · Byung-II
Choi
-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
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
응(98. 12)/張亨壽 · 元容杰
-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98. 12)/
鄭仁教
- 98-17 최근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98. 12)/
金寬濤 · 李性美
-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
點(98. 12)/尹昌仁
- 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황과
전망(98. 12)/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 98-20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政策과 投資環境
(98. 12)/趙明哲 · 洪翼杓
- 98-21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98. 12)/
全載旭 · 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
구(99. 07)/曹琮和 編

全載旭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케이오대학 경제학 박사

중국 광주대외무역대학 외국인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cwchun@kiep.go.kr)

著書 「中國의 工業化戰略과 外國人直接投資」(1996)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1997, 공저)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1997, 공저)

崔義炫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1995)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ehchoi@kiep.go.kr)

著書 「광동성 편람」(1996)

「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199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1997, 공저)

정책연구 98-21

中國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1998년 12월 24일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080 FAX : 3460-1144

인쇄 비봉출판사 전화 : 3142-6555 대표 朴琪鳳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094-2 94320

89-322-1072-1 (세트)

값 7,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G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인쇄물) / 10만원(전자메일)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역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건

- S 기관회원에 대해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 소장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A	B	C	D	E	F	G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미주경제	이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주보	
교환기관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전자메일
OB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